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A Study on Job Creation for Youth through Regional
Rehabilitation in Fishing Community

2019. 4.

박상우 | 이상규 | 윤영준 |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1절, 제3절, 제4장, 제5장

연구진

이상규 제3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윤영준 제3장 제2절
이상철 제2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박성남 도시건축연구소 도시재생센터장
정 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선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권재환 수협중앙회 어촌지원센터 센터장
김정화 해양수산부 서기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의 주요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1. 지역재생 관련 연구	9
2.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10
3.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 2 장 청년일자리 정책동향 및 어촌사회의 진단 · 17

제1절 이론적 배경	17
1. 지역재생의 개념	17
2. 지역재생의 패러다임	21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22
1. 국내 정책동향	22
2. 국외 정책동향	29
제3절 어촌사회의 진단	34

1. 인구구조의 변화	34
2. 지역재생 주도할 인력 부족	37
3. 어업지역의 공공서비스 취약성	40

제 3 장 청년일자리 창출 국내외 사례 · 45	
제1절 국내사례	45
1. 부산 영도 갯강이마을 사례	45
2. 문래 예술창작촌 사례	48
제2절 국외사례	52
1.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정(直島町) 사례	52
2. 일본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 사례	55
3. 일본 빈집재생 오카야마현 쓰야마시 사례	60
4. 독일 빌트폴트스리드(Wildpoldsried) 지역 사례	62
5. 독일 베를린 미테 지역 사례	64
6. 영국 콘월(Cornwall) 지역 사례	67
제3절 시사점	69
1.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재생	69
2. 새로운 산업발굴을 통한 지역재생	70
3. 유희시설 · 공간 리노베이션을 통한 지역재생	70
4.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 대응	71
5.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과 일자리의 연계	72

제 4 장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 75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75
1. 기본방향	75
2.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	78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95

	1. 실행방안 추진체계 95
	2. 주요 추진과제 101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9

	제1절 결론 119
	제2절 정책제언 120
	1.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120
	2.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123
	3. (가칭) 강들섬들(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 추진 124
	4. 어촌 지역재생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125

❖ 참고문헌 · 127

표 목차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4
〈표 1-2〉 본 연구의 수행체계	8
〈표 1-3〉 선행연구의 비교 · 검토	11
〈표 1-4〉 일자리 관련 선행연구의 비교 · 검토	14
〈표 2-1〉 일본 지역재생 체계	19
〈표 2-2〉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	23
〈표 2-3〉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 농업 · 농촌 혁신 사업과의 비교	25
〈표 2-4〉 주거환경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	27
〈표 2-5〉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	28
〈표 2-6〉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과제 주요 내용	29
〈표 2-7〉 지방창생통합전략 5개 중점 분야	32
〈표 2-8〉 마을재생사업 주요 사업 내용	33
〈표 2-9〉 마을재생사업 주요 사업 영역	34
〈표 2-10〉 어촌 지역소멸 위험지수(2015년)	36
〈표 2-11〉 어촌계 연령별 분포 현황	38
〈표 2-12〉 연령별 귀어귀촌 현황(2013~2016년)	39
〈표 2-13〉 지역별 청년 귀어 현황(2013~2016년)	39
〈표 2-14〉 해상교통 사각지대 섬 현황(2016년 기준)	41
〈표 2-15〉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42
〈표 2-16〉 어업지역 내 유희공간	44
〈표 3-1〉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고용	54
〈표 3-2〉 아마정 신산업 판매고 및 고용자 수 변화	59
〈표 4-1〉 어촌계의 부문별 수행가능 사업	81
〈표 4-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실행방안(안)	85

〈표 4-3〉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의 마중물 사업 세부내용	87
〈표 4-4〉 수산산업 창업지원 세부내용	88
〈표 4-5〉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세부내용	90
〈표 4-6〉 수산인재 육성 지원	93
〈표 4-7〉 부처별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방안(안)	94
〈표 4-8〉 어촌 지역재생의 부처별 실행방안	95
〈표 4-9〉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유형(안)	97
〈표 4-10〉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 및 추진과제	101
〈표 4-11〉 수산분야 주요 창업지원	103
〈표 4-12〉 청년 수산창업 펀드지원(안)	109
〈표 4-13〉 청년 수산어촌 일자리정보 전달체계 개선방안(안)	110
〈표 4-14〉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안)	111
〈표 4-15〉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 혁신 사례(안)	116
〈표 5-1〉 어촌어항법 주요 개정내용	122
〈표 5-2〉 어촌 지역재생 성과평가 추진방안	125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3
〈그림 2-1〉 지역재생 개념도	18
〈그림 2-2〉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	19
〈그림 2-3〉 지역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21
〈그림 2-4〉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	24
〈그림 2-5〉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26
〈그림 2-6〉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구조	31
〈그림 2-7〉 어가인구 추이 및 전망(1962~2044년)	35
〈그림 2-8〉 인구이동(1975~2015년) 및 어촌사회의 고령화 현황(1980~2015년) ...	35
〈그림 2-9〉 연령별 어가인구 현황(2010~2017년)	37
〈그림 2-10〉 연안여객 항로	41
〈그림 2-11〉 부문별 어업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	43
〈그림 2-12〉 어업지역의 수산 · 어촌개발 유희시설 사례	44
〈그림 3-1〉 갯강이마을 전경	46
〈그림 3-2〉 갯강이마을 문화예술 사업	47
〈그림 3-3〉 문래 예술창작촌 전경	49
〈그림 3-4〉 문래 예술창작촌 예술인 지원 사업	51
〈그림 3-5〉 2016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포스터	52
〈그림 3-6〉 섬의 부역	55
〈그림 3-7〉 주택숙박사업법	60
〈그림 3-8〉 빌트폴트스리드 전경	63
〈그림 3-9〉 팩토리 베를린 전경사진	65
〈그림 3-10〉 2017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66
〈그림 3-11〉 영국 콘월 지역 전경	68

〈그림 3-12〉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	69
〈그림 4-1〉 어촌 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77
〈그림 4-2〉 어촌의 청년일자리 창출 5대 추진방향	78
〈그림 4-3〉 마중물 사업과 연계사업 추진방향	79
〈그림 4-4〉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외부와의 협력 · 연대 추진방향	82
〈그림 4-5〉 어촌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향	83
〈그림 4-6〉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방안	84
〈그림 4-7〉 해양수산부 어촌 · 어항재생 마중물 사업 영역별 추진체계	86
〈그림 4-8〉 지역 역량강화 지원	91
〈그림 4-9〉 수산분야 일자리 매칭 지원	92
〈그림 4-10〉 해수부와 법무처 어촌 지역재생의 협력 모델 방향(제주 비양도, 군산 개야도 예시)	96
〈그림 4-11〉 창의적 융합형 개념	98
〈그림 4-12〉 수산분야 창의적 융합형 사례((주) 밸리스)	99
〈그림 4-13〉 수산산업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 창직 지원(안)	104
〈그림 4-14〉 수산 · 어촌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전문기관 체계(안)	105
〈그림 4-15〉 청년 어촌산업 창업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안)	107
〈그림 4-16〉 고령어업인 어업인프라 임대사업 운영방식	108
〈그림 4-17〉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어촌 지역재생 지원	112
〈그림 4-18〉 농어촌지역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 사례	114
〈그림 4-19〉 농어촌지역 교육 서비스 공급 사례	115
〈그림 4-20〉 농어촌지역 사회복지 · 돌봄 서비스 공급 사례	116
〈그림 5-1〉 어촌어항재생 관련 법률 제 · 개정 추진	121
〈그림 5-2〉 (가칭) 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 구성(안)	123
〈그림 5-3〉 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 수립(안)	124

요약

요약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청년 취업난과 일자리 창출이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어 각 부처별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어촌지역의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 등 지역재생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 지역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 쇠퇴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농어업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다시 활력을 일으키는 '재생(再生)'의 방안으로 경제 재생과 생활기반 재생이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추진된 지역재생 성

공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 재생은 쇠퇴하는 농어촌의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농어촌의 쇠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커뮤니티 뉴딜사업(NDC: New Deal for Communities), 농촌 마을재생(Village Renewal)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구를 유지·결집시켰다. 일본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마치즈쿠리: まきづくり)와 지방 창생전략을 추진하여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정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촌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i) 창의적 융합형, ii) 수산 창업형, iii) 어촌 사회 혁신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창의적 융합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수산업 미래 산업화가 만나는 접점으로 윈스톱 패키지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수산 창업형은 어촌사회에 청년어업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지원(어업인프라, 펀드지원 등), 인재양성 및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어촌 사회 혁신형은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어촌주민과 청년이 협력·연대하는 것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촌사회에 지역재생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선도사업으로 ▲ 어촌 지역재생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어촌어항법 개정<단기> 및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장기>), ▲ 해양수산부 내 (가칭)해양수산 지역재생추진단 신설, ▲ 어촌 지역재생 네트워크, (가칭) ‘강들섬들 프로젝트’ 추진, ▲ 어촌 지역재생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국, 농어촌 지역재생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선진국 지역재생전략: 쇠퇴하는 농어촌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

- 지역재생은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의미로, 한때 활성화됐던 지역이 쇠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및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再活性化)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짐
- 유럽연합은 유럽농업기금(EAFRD)을 통해 2만 7,000개의 농촌 마을재생(Village Renewal) 정책을 추진하여 소규모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문화자원 유지·보수, 개선 등에 투자
- 영국은 농어업의 쇠퇴, 사회적 배제, 공공서비스 부족 등 사회 문제가 낙후지역 또는 쇠퇴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이면서 동시에 지역문제로 인식함
 - 농어촌지역 사회·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재생 정책으로 커뮤니티 뉴딜사업(NDC: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2011), 쇠퇴하는 커뮤니티 개선을 위한 근린지구 재생기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현재) 등이 있음
- 일본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마치즈くり: まきづくり)가 지역재생으로 통용되며, 도시, 중심시가지, 구조개혁특별구역,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농어촌의 인구소멸과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촌 단위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2014년)」을 제정하고,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과 지역 공간구조 재편에 나섬
 - 농어촌 지방창생전략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구를 유지·결집시키며, 다시 일자리의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임

- 일본은 이를 통해,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확보하여 인구의 안정화와 국내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5~2.0% 유지가 핵심 목표임

■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재생, 상향식과 지역공동체 주도의 新 내생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 국토교통부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시쇠퇴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과거 하드웨어 정비 중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추진전략으로 활용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재생사업과 함께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산업인프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을 추진
 - 기본 농가단위의 주민애로 해결 사업에서 벗어나 청년 농업인 및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거점 조성형 확산 전략으로 전환
 -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청년이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과 공동 R&D를 통해 기술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재생의 혁신거점과 유사한 기능

표 1.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 농업·농촌 혁신 사업과의 비교

구분	기존	개선방향	내용
	기존 농업인	기존 농업인	- 스마트팜 보급+규모화+집적화
정책대상	-	청년 농업인	-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전후방 산업	- 자금, 농지, 경영희생 지원체계 마련 -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	스마트팜 혁신 밸리	- 생산유통, 인력양성, 기술혁신 및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거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 방안」(검색일: 2018. 9. 30)

- 지역재생은 쇠퇴한 지역에서 주민주도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복원하고, 지역의 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외생적 지역발전에서 新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전환
 - 신 내생적 지역재생의 핵심은 지역공동체로 공동체 주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경제적 빈곤을 넘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
 -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 문제발굴과 해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주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어촌, 지역소멸과 삶의 질 악화로 지역재생 주도역량 부족

- 어촌사회는 어가인구 10만 명 붕괴와 지역소멸 고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어가인구는 1967년 1,140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 121천 명으로 감소.
 -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2년에는 어가인구 100천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어촌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교통 등의 접근성과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어촌은 인구감소를 넘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서로 전환되고 있음
- 어재생을 주도할 청년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중심의 어촌공동체는 역량기반 취약
 - 어촌사회의 청년인구는 2010년 47,622명으로 전체 어가인구의 27.8% 수준에서 2017년에는 23,102명으로 전체의 19.0%로

수준으로 나타나 5명 중 1명이 39세 미만으로 청년층의 인구감소는 심화되고 있음

- 어촌공동체가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 지역재생의 핵심적인 사업주체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청년층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어촌계 연령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61~70세 39,645명(30.8%)로 가장 높았고, 51~60세 34,981명(26.9%), 71~80세 25,201명(20.2%), 50세 미만 19,103명(14.7%) 순으로 나타났음

■ 수산업 중심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청년의 어촌사회 정착은 미미한 수준

- 도시민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신규인력의 유입도 귀농·귀촌에 비해 노동환경, 어업기반 구축, 수협 및 어촌계 가입 등 제약요인이 많아 정착규모도 연간 200명 내외임
 - 연령별 귀어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0.3%로 가장 많고, 40대 24.7%, 39세 이하 19.5%순이며, 청년 귀어인의 비율은 20% 미만으로 나타남

표 2. 연령별 귀어귀촌 현황(2013~2016년)

단위: 명, %

구 분		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귀어인 (비율)	3,746명 (100.0)	731 (19.5)	924 (24.7)	1,285 (34.3)	628 (16.8)	178 (4.8)
2016년	귀어인 (비율)	1,005 (100.0)	188 (18.7)	220 (21.9)	337 (33.5)	203 (20.2)	57 (5.7)
2015년	귀어인 (비율)	1,073 (100.0)	207 (19.3)	253 (23.6)	398 (37.1)	176 (16.4)	39 (3.6)
2014년	귀어인 (비율)	978 (100.0)	186 (19.0)	270 (27.6)	320 (32.7)	147 (15.0)	55 (5.6)
2013년	귀어인 (비율)	690 (100.0)	150 (21.7)	181 (26.2)	230 (33.3)	102 (14.8)	27 (3.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귀농귀촌인 통계」, 각 연도

■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삶의 질은 낮고, 어촌사회 내 유희공간과 시설 증가

- 삶의 질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7대 부문에서 어촌지역은 모든 영역에서 농촌지역,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음
 -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상대적으로 열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업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제약성에 기인하여 생활서비스 개선 등 지역재생이 필요함
- 수산업 쇠퇴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어항, 수산업 기능시설, 어촌개발 지원시설, 폐교 등 유희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은 미미한 실정임

표 3. 어촌사회 내 유희부지 및 유희시설

단위: m², 개소, 호

구분	공유자산 규모
국가어항 내 유희부지	716,839
미활용 폐교	373
빈집	425,788

자료: 해양수산부, 유희어항 활용 및 청정어항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2017, p.32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폐교현황」; 국가통계포털 총주택조사 「빈집현황(2016년)」

쇠퇴하는 농어촌, 지역재생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 쇠퇴하는 지역에 역사와 문화·예술 콘텐츠 접목을 통한 지역재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 쇠퇴지역에 역사, 문화예술 콘텐츠를 입혀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키고, 관련 서비스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개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영도 깡깡이마을은 조선업 쇠퇴에 따라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으로 주민공공체가 주도하는 협동조합과 마을재생 프로젝트로 예술문화사업 분야에 3년간 200여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함
- 일본 나오시마 일원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낙후된 12개 섬 지역에 문화예술 접목을 통한 지역재생을 통해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이를 위해 3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영국 콘월 사례는 연안어촌발전기금(CCF: Coastal Communities Fund) 지원을 통해 기존 미술관 증축으로 관광집객력이 증가하고, 관내 미술관 전시관련 및 운영·관리 일자리와 미술관 내 레스토랑, 매점 등의 서비스로 창출되는 청년일자리 수는 250개 창출

■ 쇠퇴지역에 공유자산(유헴시설·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 지역이 침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헴시설과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재생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음
- 베를린 주정부는 2011년 낡은 맥주공장을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 16,000㎡ 규모로 조성하고, 트위터, 모질라, 사운드클라우드 등 IT기업 25개 회사를 유치하여 입주시키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2017년)에서 7위에 올라 스타트업의 새로운 허브로 성장함
- 일본의 아마정은 섬 자립을 위해 2004년 3월 ‘자립, 도전, 교류’를 키워드로 한 「자립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과 행정의 개혁, 산업진흥책, 주민 주도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재

육성 등 대응방안으로 483명(326세대) 규모의 40대 미만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정착함

- 양양군은 물치항 위판장과 주변 공유자산에 리버마켓¹⁾(농수산물 및 공예품 판매, 주민참여 공연 등)을 유치하여 일일 관광객 3만 명의 집객력을 창출하고, 지역수산물의 판로확대로 소득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빌트폴트스리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강구하게 되었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을 새로운 시의 산업으로 육성
 - 빌트폴트스리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발전을 위한 설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으며, 3가지 발전 방법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일부는 지자체 전기 사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력회사(지멘스)에 매전하여 수익을 창출
 - 에너지 생산을 통한 수익사업이 마을의 대표 산업이 되자 빌트폴트스리드시는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 Sonnenbatterie GmbH이라는 전력저장장치 회사를 지역 내로 유치
 - 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 및 관련사업 홍보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40개가 창출되었고²⁾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젊은 청년들로 고용
 - 전기저장기업인 Sonnenbatterie GmbH의 유치로 창업초기(2010년) 종사자수는 10명이었으나 2016년 사업성장에 따라 200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종사자수는 400명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로 유입효과 발생

1) 강변이나 어항부지 등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등을 생산자가 주말에 직접 판매하는 플리마켓 형태임.

2) Renewable Energy World, "A Small Town in Germany Becomes a Testing Ground for a Smart Grid", (검색일: 2018, 09. 28)

지역재생 기제와 청년일자리 매칭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조성

■ 사람이 돌아오는 제2의 어촌 전성시대를 위한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 일자리 니즈 수용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사회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활동 다각화 및 창의적 융·복합, 청년인재 양성, 어촌 사회혁신 등을 추진
 - 어촌사회에서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는 데 경제여건, 노동(작업) 여건, 일자리 정보 및 기술습득 어려움, 삶의 질 여건 등은 제약요인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는 할 수 있는 지역재생 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어촌계, 지구별 수협 등 지역 내 공동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과 육성시켜 독립성 및 자생력을 강화
 - 에코세대(Echo Generation)로 대표되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반영

■ 어촌형 생활 SOC 마중물 사업과 타 부처 협력·연계를 통해 지역재생 기반 확대

- 수산업 침체 등 쇠퇴하는 어촌의 정주환경, 경제활동 등 지역활력 기반의 취약성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유입 활성화 유도
 - 어촌 지역재생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보다 폭 넓은 지역재생 마중물 사업을 토대로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 지역재생과 연계된 생활 SOC, 관광, 일자리 등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완결성을 강화

- 낙도(섬) 어촌의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생활 SOC 확충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광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표 4. 어촌 지역재생의 부처별 실행방안

구분	해양수산부	범부처 연계(안)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생활 SOC	관광	일자리
마중물 사업	- 어촌뉴딜 300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 전담구역)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특화여행개발사업	- 도시재생 뉴딜 사업 - 도서종합개발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남해안 관광루트 개발 - 섬·해안 관광 자원 개발 - 생활관광 활성화 - 농어촌민박 활성화 - 농촌관광 플래너	- 지역주민 관광역량 강화 및 인력 육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내용	- 해상교통 (접안·계류 시설, 편익 등) - 어촌·해양관광 인프라 - 어촌생활환경정비 - 주민역량강화 - 6차산업화, 소득원 창출	- 생활환경 인프라	- 관광인프라 구축	- 일자리 인프라

자료: 저자 작성

■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업·창직 유형화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콘텐츠 마련

-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분야와 니즈,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실행방안 등을 고려하여 크게 i) 창의적 융합형, ii) 수산창업형, iii) 어촌 사회혁신형 등으로 세분화
- 창의적 융합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가 만나는 접점으로 청년일자리 수산산업의 영역과는 다른 신산업 영역으로 확장

- 청년 대상 창업지원사업은 창업단계 및 창업이후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형태와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과 시장진입에 성공한 사례, 전문컨설팅 가능한 기관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의 관심도 제고와 창업·창직 활성화 확대
-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민간, 대학) 등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각지대와 청년의 일자리 니즈를 연계하는 등 주체별 역할·기능 강화
- 협력기반 강화사업에 유관분야 청년 네트워크 지원내용을 결합하여 해양수산 분야 청년창업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 수산창업형은 어촌사회에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지원, 인재양성 및 일자리 매칭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
 - 고령층의 어업 인프라를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역량검증을 통과한 귀어(예정) 청년에게 대여하고, 청년층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가 5년간 임대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 창의적 융합형과 수산창업형 청년들을 대상으로 벤처펀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창업 소액투자 펀드는 창업 초기에 소액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청년일job 자리를 창출 유도
 - 어촌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섬)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이를 단계별(서류단계 → 면접단계 → 임용계약 준비단계 → 채용완료 등)로 제시함으로써 일자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은 청년유입에 제약이 많은 섬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우대지원 방안

- 어촌 사회혁신형은 어촌사회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어촌주민과 외부청년들이 협력·연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역현안과 문제를 선순환 구조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정주환경, 문화여가 등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혁신하여 지역재생 사업의 성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 어촌사회에 지역수요가 높은 문화예술,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이 어촌 지역재생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마련
 - 어촌 지역재생의 추진과정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규제나 제도적으로 제약을 과감하게 혁신할 수 방안 마련

표 5.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 창업·창직 유형(안)

구분	창의적 융합형	수산창업형	사회혁신형
정책대상	청년 창업희망자	청년 수산창업가	어촌주민 + 청년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 창출	창직 + 융합 + 분화	창업 + 기존 일자리 매칭	생활(공공)서비스 공급
청년 니즈	도전(벤처) 정신	고소득 기대 안정적인 일자리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공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ICTs, 바이오, 빅데이터, AI 등)	생산+유통가공+판매, 관광서비스	교통, 돌봄, 문화여가, 교육 등 취약한 어촌 생활서비스
실행방안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 청년 창업창직활동 지원 강화 -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구성 및 외부 협력기반 강화	-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영여자금, 컨설팅 등) - 수산인재양성 - 일자리 매칭 - 고령어업인 청년 계승 지원 -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 지원	- 지역 역량강화 - 어촌 현안문제 해결 -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마중물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 특화여항개발		

자료: 저자 작성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선도사업 필요

■ 「어촌어항법」 개정,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어촌과 어항개발로 이원화된 현행 「어촌어항법」에 제5장(어촌·어항재생)으로 신설하고, 단기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근거로 어촌 지역재생의 실행기반을 마련함
- 어촌어항재생 계획수립(제48조, 제49조), 거버넌스 추진체계(제48조~제52조), 사업시행 및 지원(제53조) 등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 지역재생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개정과 기 「어촌어항법」과의 정합성을 유지

표 6. 「어촌어항법」 주요 개정내용(안)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어촌어항재생 관련 용어의 정의 - “어촌·어항재생” / “어촌·어항재생사업” - “어촌어항재생사업구역”	-
제2장	발전	(제4조): 기본계획 사항 중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항 추가	-
	기본계획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중 “어촌·어항재생사업”사항 추가	-
제5장	어촌·어항재생	(제48조): “어촌·어항재생전략계획 수립(해수부)” 사항 추가	계획수립
		(제49조): “어촌·어항재생전략계획 수립(지자체)” 사항 추가	
		(제50조): “어촌·어항재생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설치” 사항 신설	거버넌스 추진체계
		(제51조): “어촌·어항재생사업지원단 설치 및 지원근거” 사항 신설	
		(제52조):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 사항 신설	
		(제53조):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 및 사업비 지원” 사항 신설	사업시행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안), TF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어촌 지역재생의 체계적인 지원체계와 해양수산부 및 타 부처의 지역재생과 연계성을 제고

■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해양수산부 내에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 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의 조직체계 구성과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이원화
 - (가칭) 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은 연안·항만재생팀, 어촌·어항재생팀, 해양레저팀, 일자리 혁신팀 등 연안·어촌지역의 지역재생 및 청년일자리 창출분야 전담인력을 배치
 - 부산·인천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KMI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등 민간영역에서 각 분야별로 중간지원조직 지정을 통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근거규정과 세부 역할규정은 가칭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마련토록 함

■ 강마을에서 낙도(섬)에 이르는 어촌 지역재생 네트워크, (가칭) ‘강들 섬들’ 프로젝트 추진

- 강(내수면), 들(농어촌), 섬(어촌) 등 내수면 어촌에서 섬 지역까지 전 국토를 아우르는 어촌 지역재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양수산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종합적인 구상(안) 마련
 - 점 단위 어촌, 어항에 대한 소규모 정책에서 벗어나 해면과 내수면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연차별로 추진하는 어촌 지역재생의 밑그림 설정 필요

■ 어촌 지역재생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

- 생활 SOC 등 마중물 사업지원과 해양수산부 내 담당과에서 정책 별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에 따라 각 내역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폐지 등 정책효율성 제고
-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자체, 유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구직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관심 제고

표 7.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성과평가 추진방안

구분		세부내용	비고
마중물 사업지원	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연구용역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어항	특화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통합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산업 창업지원	중간지원조직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실적 모니터링 (수산정책과 / 어촌어항과 / 해양레저관광과)
	수산물관련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귀어인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	
	해양관광벤처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정보전달 및 컨설팅	귀어귀촌 창업박람회	지원실적 모니터링 (어촌어항과)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정착지원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생활안정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	
일자리 매칭		어업인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정보	지원실적 모니터링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수산인재 육성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지원실적 모니터링 (소득복지과)
		수산계 대학과정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자료: 저자 작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청년들의 취업난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누적되면서 일자리 창출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¹⁾와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청년일자리 대책(2018. 3. 15)’을 발표하는 등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각 부처별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

1)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

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어촌분야는 생활형 SOC의 일환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형 SOC인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존 대규모 토목사업과는 차별화된 주민주도의 지역 현안발굴과 사업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낙후된 어촌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국한되어 어촌사회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과 어항의 재생을 통한 어촌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기제를 통한 지역재생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활형 SOC로서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재생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과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지역재생의 다양한 기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촌재생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외 도시,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촌·어항의 재생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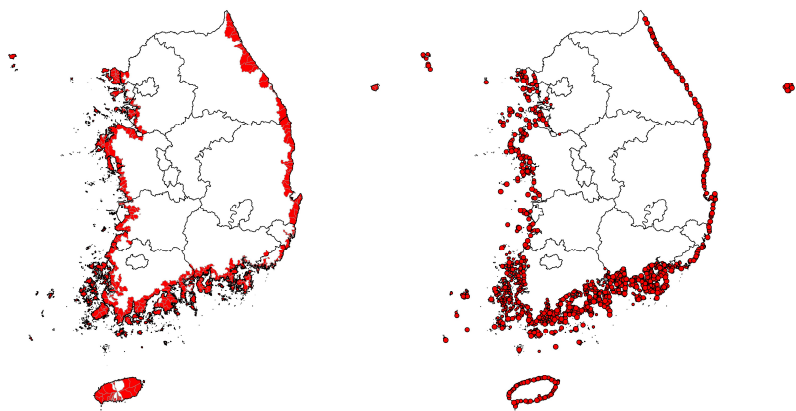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어항과 그 배후 어촌의 지역재생과 이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3)에서 정의하는 어항을 공간적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 2) 어촌이란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 동 of 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소규모 항포구)을 의미함.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표 1-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며, i)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동향 및 어촌사회 진단, ii)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iii)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iv)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세부내용
청년일자리 정책동향 및 어촌사회 진단	지역재생 개념 및 기제	- 지역재생의 개념 및 의미 - 지역재생의 발전과정 - 국내외 지역재생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제
	국내외 정책동향	- 국내 청년일자리 대책 - 일본 지방창생전략 - 유럽연합 'Europe 2020'
	어촌사회의 진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 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인력 및 역량부족 - 공공서비스의 취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국내외 사례	국내외 유형별 사례연구	- 공공예술 등 문화적 지역재생 사례 - 귀어귀촌 등 창의적 인력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 유희시설 · 공간 리노베이션을 통한 지역재생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재생
	일자리 창출요소 및 시사점	- 사례에서 살펴본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소 - 부분별 사례의 시사점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기본방향	- 어촌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
	정책과제 도출	- 전략별 추진과제 제시
	세부 추진과제	- 청년일직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 제시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 전담기관의 설립 · 추진 - 관련 법제도 개선

구분		세부내용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 마중물 사업과 청년일자리 정책 연계 통한 성과도출
	정책제언	- 관련 법제도 개선 - 어촌뉴딜 300사업 모델 제시 - 어촌사회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 어촌의 지역재생을 통해 어촌의 활력과 청년일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혁신적인 일자리발굴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장에서는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어촌사회를 진단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지역재생은 SOC와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회복 및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방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역재생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과정이 있었고, 지역재생에서 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업방식에 따른 기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에 대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별 특성과 일자리 창출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시, 농·어촌 지역재생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공예술 등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사례, 귀농어·귀촌 등 혁신적인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사례, 지역쇠퇴에

따른 유희시설 및 공간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재생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촌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의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촌재생의 다양한 기제를 통해 청년의 어촌사회 유입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하고,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 등 청년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전담기관의 설립·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과제와 예산확보, 국회 입법과제 등을 제언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 문헌조사, ii) 공공DB 등 통계분석, iii) 국내외 현장조사, iv)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농어촌 마을재생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 논문, 국내외 인터넷 검색자료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본, 유럽의 문헌자료는 지역재생 기제와 추진과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공공DB 등 통계분석

본 연구는 어촌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수산업 쇠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취약성 등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어촌사회의 실태와 진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국내외 현장조사

본 연구의 연구진은 지역재생의 성공사례와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어촌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유럽연합의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정책에 따른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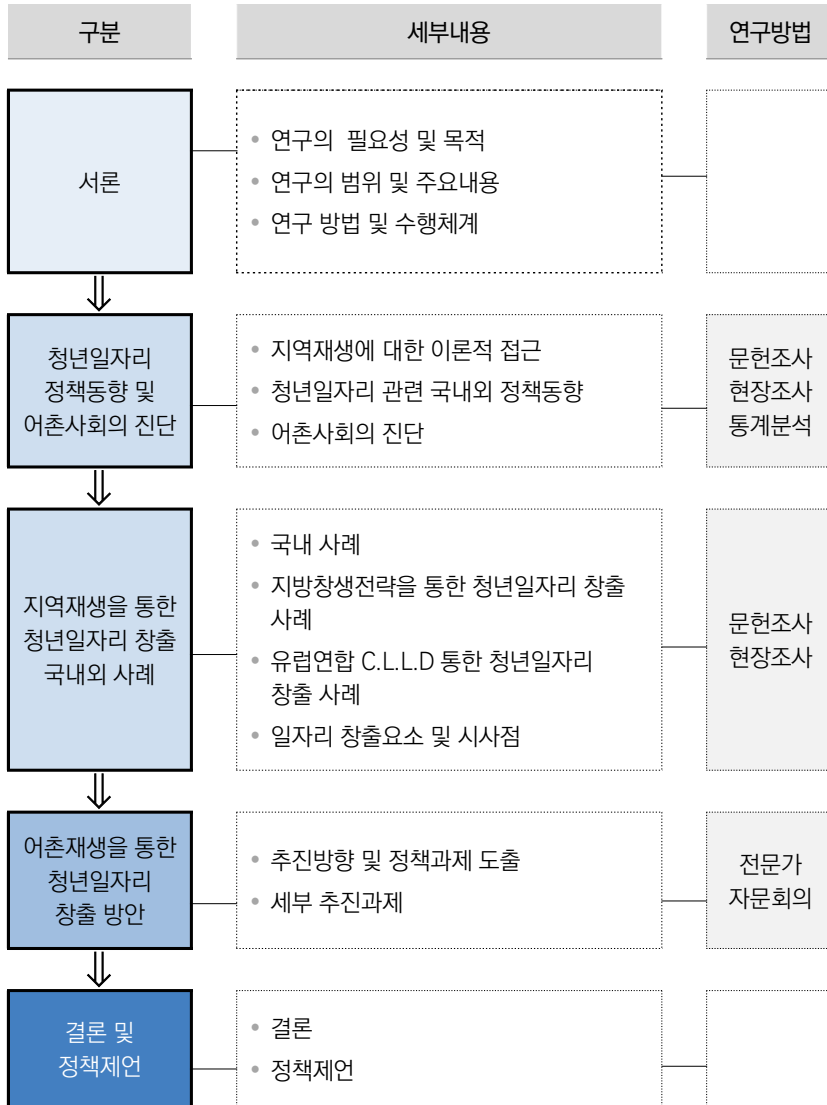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였다.

2) 수행체계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표 1-2>와 같다. 이 연구의 수행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i) 청년일자리 정책동향 및 어촌사회의 진단, ii)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국내외 사례, iii) 어촌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도출하였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과 기존사업과의 연계, 관련 법제도 개정 등을 통해 어촌사회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2〉 본 연구의 수행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재생 관련 연구

1) 지역재생 관련 법·제도 연구

이홍배 외(2007)⁴⁾는 일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인 ‘지역재생계획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의 흐름과 지역재생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 자치부 주도의 ‘지역재생특별법(가칭)’을 제안하였다.

2) 지역재생의 콘텐츠 관련 연구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역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콘텐츠로 공공미술 (문화), 유희공간(산업유산), 경제활동,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되었다. 추미경 외(2012)⁵⁾는 문화, 강동진(2010)⁶⁾은 산업유산의 재활용, 한승욱 외(2011)⁷⁾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윤희 외(2010)⁸⁾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재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3) 지역재생 사업주체 및 실천과제 관련 연구

지역재생 관련 사업주체에 관한 연구는 박인권(2012)⁹⁾이 지역공동체

4) 이홍배 외(2007. 11).

5) 추미경 외(2012. 12).

6) 강동진(2010. 3), pp. 157~178.

7) 한승욱, 오재환, 이동현 (2011. 11).

8) 정윤희 외(2010).

9) 박인권(2012).

주도에 따른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였고, 김륜희 외(2017)¹⁰⁾는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변해선 외(2017)¹¹⁾는 충청남도의 지역재생 모델과 신규사업 발굴 등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2.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이광남 외(2018)¹²⁾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을 다루었다. 특히, 해양관광과 수산분야에서 수산창업, 귀어귀촌 등 일부 사업에 국한한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제안보다는 기존 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였다.

김진수 외(2017)¹³⁾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가치형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이커 리더, 지역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박상우 외(2017)¹⁴⁾는 도시형 어촌의 입지적 특성을 기반으로 도시 청년 창업·창직 콘텐츠를 살펴보았고, 본 연구 추진과정에서 방향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 어촌이라는 공간적인 한정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10) 김륜희, 윤정란(2017).

11) 변해선 외(2017).

12) 이광남 외(2018).

13) 김진수 외(2017. 12).

14) 박상우, 이호림, 이상규 (2017).

이민수 외(2017)¹⁵⁾는 청년들의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수산업·어촌분야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농촌진흥사업에서 검토되는 신규 일자리사업은 본 연구에서도 많은 참조가 되었다.

김정호 외(2015)¹⁶⁾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청년 귀농인의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창업 준비단계, 정착 초기단계,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방안과 시업시행 체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비교검토

법·제도, 활용분야, 사업주체 등 지역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1-3>과 <표 1-4>와 같다.

<표 1-3> 선행연구의 비교·검토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지역 재 생 관 련 연 구	1 - 과제명: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 연구자: 추미경 외(2012) - 연구목적: 개별사업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정책 성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지향가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모델 정립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동향 - 문화부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15) 이민수 외(2017. 7).

16) 김정호 외,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사)환경농업연구원, 2015.12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지역 재생 관련 연구	2	• 과제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제도 도입방안 연구 • 연구자: 이홍배 외(2007) • 연구목적: 일본의 지역재생 계획제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추진 방향 제시	• 문헌 조사 • 현장 조사 • 면담 조사 • 설문 조사	• 일본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현황과 특징 • 지역재생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재생제도의 법·제도적 지원체제 • 지역재생사업 사례 분석 • 지역재생제도의 국내 도입 및 추진방안
	3	• 과제명: 도시재생 뉴딜 실천 과제 발굴 연구 • 연구자: 변해선 외(2017) • 연구목적: 새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재생 모델 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실천과제 마련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현황 조사	• 여건변화 및 관련법규 검토 • 도시재생 추진여건 및 지자체 역할 검토 • 도시재생 뉴딜 추진전략 및 실천 과제
	4	• 과제명: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 연구자: 박인권(2012) • 연구목적: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재생을 위한 올바른 지역발전전략 제시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지역재생과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지역재생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변화 •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5	• 과제명: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연구 • 연구자: 강동진(2010) • 연구목적: 산업유산 재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와 원칙 도출, 산업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산업의 분석과 재활용 과정상의 특성 도출	• 문헌 조사 • 관계 분석	• 산업 유형별 자원체계 분석 • 재활용 과정에서의 지역재생관련 특성 •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역재생의 관계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지 역 재 생 관 련 연 구	6	• 과제명: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 김륜희 외(2017) • 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자산화전략의 필요성과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문헌 조사 • 통계 분석 • 사례 조사	• 도시재생지역의 사회적경제 현황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 도시재생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7	• 과제명: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재생 방안 • 연구자: 한승욱 외(2011) • 연구목적: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현황과 지역재생사업과의 연계성방안 모색으로 새로운 지역재생방안을 제안	• 문헌 조사 • 설문 조사	•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재생 방안
	8	• 과제명: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 정윤희 외(2010) • 연구목적: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특성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안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 • 설문 조사	• 취약계층 밀집지역 심층분석 • 외국의 사회적경제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실태와 시사점 •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본 도시재생정책의 현황 및 한계 •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

〈표 1-4〉 일자리 관련 선행연구의 비교 · 검토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일 자 리 관 련 연 구	1	- 과제명: 해양수산 주요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연구 - 연구자: 이광남 외(2018) - 연구목적: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일자리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CVM	-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 - 일자리 정책분류 및 효과분석 이론적 배경 - 해양수산분야 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 해양수산분야 일자리정책 중요도 분석
	2	- 과제명: 미래가치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 연구자: 김진수 외(2017) - 연구목적: 미래가치형 청년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의 제언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 메이커 리더 일자리 창출방안 - 지역경제 리더 양성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3	- 과제명: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 연구자: 박상우 외(2017) - 연구목적: 도시어촌 입지와 서비스기능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콘텐츠 발굴 및 추진과제를 제시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아이디어 공모 - 전문가 자문	- 도시어촌과 청년일자리 현황 - 도시어촌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례 - 도시어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4	- 과제명: 농촌진흥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자: 이민수 외(2017) - 연구목적: 농진청이 추진해 왔던 농촌진흥사업 일자리 창출 과제의 성과분석을 통해 농촌진흥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담당자 면담 - 전문가 자문	- 농촌 일자리 정책 동향 -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분석 - 타 부처 일자리 사업 사례 - 농촌진흥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방향 - 농촌진흥 신규일자리 사업

구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 과제명: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 연구자: 김정호 외(2015) • 연구목적: 기존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및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전문가자문	• 최근 귀농동향과 영농승계 및 창업농 추세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 • 청년 농산업창업 관련 외국사례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수산업 쇠퇴와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으로 인해 낙후된 어촌지역을 지역재생의 기제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어촌 지역재생의 시각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 수행된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최근 지역밀착형 생활 SOC로 분류되는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정부의 마중물 정책과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체계를 도입하고, 특히 마중물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응한 사회경제체조직의 육성 및 유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여건변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이루어질 경우 청년들의 인식변화 등은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만, 어촌뉴딜 300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모델 발굴과 관련 부처의 지역재생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2 장

청년일자리 정책동향 및
어촌사회의 진단

제1절 이론적 배경

1. 지역재생의 개념

1) 사전적 정의

재생(再生)이란 의미는 단어 그대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쓰인다. 지역재생(地域再生)은 별도의 사전적 정의는 찾기 어렵고 통상 유럽과 일본의 지역정책에서 사용되었던 개념과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했던 법률적 개념에서 채용해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은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개념이다. 다시 소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듯이, 이는 한때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및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이다.¹⁷⁾

17) 이소영 외(2012), p. 25.

〈그림 2-1〉 지역재생 개념도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발표자료
(검색일: 2018. 10. 5)

2) 영국 · 일본의 지역재생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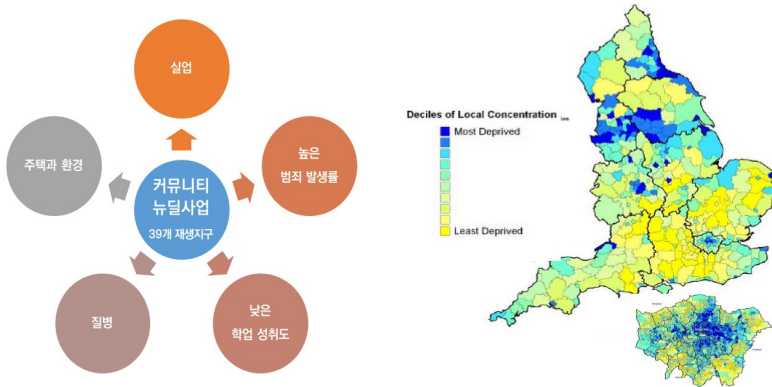
(1) 영국의 지역재생

영국의 지역재생은 1990년 후반 대규모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등 도시재생 정책에서 사회경제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역재생 정책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낙후된 근린주구 단위로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¹⁸⁾ 영국의 농어촌지역도 도시화 · 산업화 과정이후에 나타나는 농어업의 쇠퇴, 사회적 배제,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사회문제는 낙후지역이나 쇠퇴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사회 · 지역문제 해결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재생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추진되었던 커뮤니티 뉴딜사업(NDC: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2011), 쇠퇴하는 커뮤니티 개선을 위한 근린

18) 이소영 외(2012), p. 20.

지구 재생자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현재) 등이 영국 지역재생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림 2-2〉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



자료: (좌)저자 작성, (우)구글검색(검색일: 2018. 10. 5)

(2) 일본의 지역재생

일본의 지역재생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마치즈쿠리: まちづくり)가 지역재생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만들기는 농어촌의 쇠퇴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모든 영역의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지역재생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1〉 일본 지역재생 체계

구분	도시재생본부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설치 시기	2001년	1998년	2002년	2014년
근거법	도시재생특별 조치법 (2002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1998년)	구조개혁특별 구역법 (2002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2014년)

구분	도시재생본부	중심시가지 활성화 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	마을·사람· 일자리창생본부
목적	도시기능의 고도화 도시 거주환경 향상	중심시가지 정비개선 산업활성화	구조개혁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지역 공간구조 재편
사업대상	도시재생긴급 정비지역 도시재생 특별지구	중심시가지 활성화구역	시정촌	시정촌 (지방창생구역)
사업내용	물류기능 강화 국제거점 형성 지방 중핵도시 개성화	중심시가지 정비개선 도시 복지시설 정비 시가지 거주 촉진 사업활성화	국제공항특구 농업특구 교육특구	농어촌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사람 유입 청년 맞춤형 지원 소거점화

자료: 이소영 외(2012), pp. 23~24의 내용을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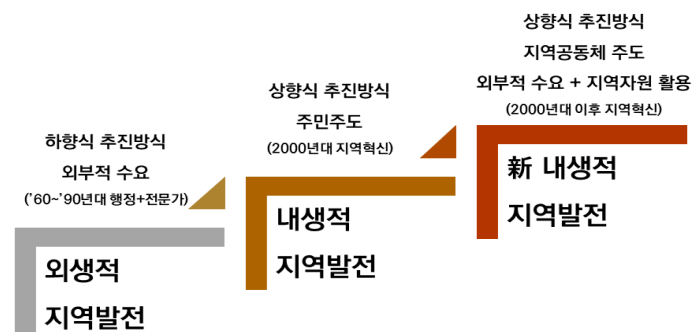
2) 어업지역 재생

‘어업지역(漁業地域) 재생’에 대한 개념은 해양수산부가 어촌뉴딜 300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검토되었다. 당시에는 ‘어촌·어항재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업지역 재생으로 다루고자 한다. 어업지역 재생은 ‘수산업 쇠퇴, 초저출산·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취약한 공공서비스 등 낙후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된 어촌에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다시 활력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개념적 정의를 정리해 볼 수 있다.

2. 지역재생의 패러다임¹⁹⁾

지역재생은 쇠퇴한 지역에서 주민주도로 지역공동체를 형성 또는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개선으로 다시 활력을 이루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지역재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접근되었던 지역발전의 접근방식을 i) 외생적 지역발전, ii) 내생적 지역발전, iii) 신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구분하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지역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외생적 지역발전은 국가 등 외부세력에 의한 자극과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발전방식이다. 이러한 외생적 지역발전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진하는 하향식 추진방식으로 지방의 주요거점별 성장거점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입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집적화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과 하드웨어 중심의 집중적인 투자로 이어

19) 박인권(2012), pp. 6~7. 재정리

저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양적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무차별적인 개발방식으로 이어져 지역자원과 환경훼손, 공동체 이완·해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내생적 지역발전은 과거 정부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추진주체와 그 성과가 지역내부로 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내생적 지역발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 재정과 외부자본의 유치보다는 지역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의 인간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내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 이후 최근 지역재생의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동 등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문제발굴과 해결에 있어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1) 도시·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편입을 계

기로 도시 및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²⁰⁾

문재인 정부는 뉴딜사업의 체계적 수행과 부처 간 협업 촉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4대 정책목표와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표 2-2〉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

정책 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 삶의 질 향상 • 도시 활력 회복	• 도시공간 혁신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 주민과 지역 주도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자료: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2018), p. 9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소개하고 있다.²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뉴딜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어울림 플랫폼)’, ‘터 새로이 사업’,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사회적 금융 및 모태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등이 제시된다. 이중 핵심 사업인 ‘터 새로이 사업’은 노후건축물의 개량을 통한 지역 재생 및 일자리 창출 사업²²⁾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초 사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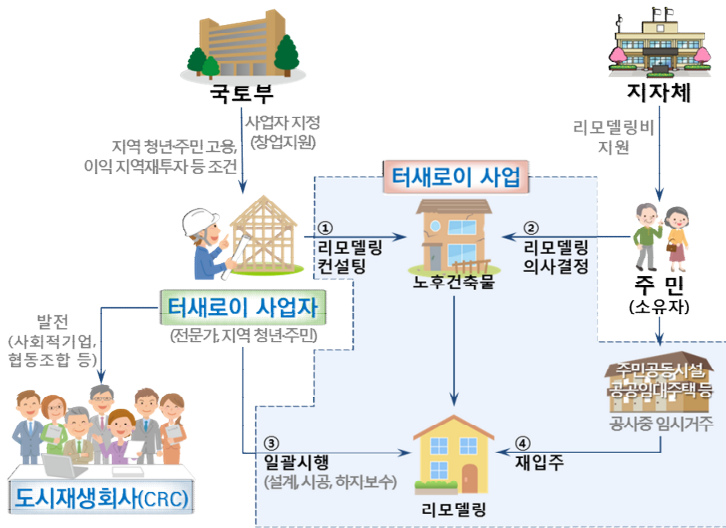
20) 이왕건 외(2017), pp. 1~4.

21) 권규상 외(2018).

22)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창업·사업 컨설팅 서비스, 창업비 지원, 창업공간 임대를 통한 창업 기회 확대 등.

‘터 새로이 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시행된다. 국토부에서 사업자²³⁾를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개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터 새로이 사업자가 대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다.

〈그림 2-4〉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2018), p. 28

2) 농업·농촌 혁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재생 사업과 함께 농업·농촌 지역 혁신 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18. 4. 15)’와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18. 4. 16)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주요 정

23) 터 새로이 사업자는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며 향후 사업이 확대될 시 도시재생형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구성)으로 발전하게 됨.

책과제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산업인프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을 설정하였다.²⁴⁾

과거에도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전략이 있었지만 이는 농가 단위의 주민애로 해결사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는 스마트팜 확산 전략은 청년 농업인 및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거점 조성형 확산 전략이다.²⁵⁾

〈표 2-3〉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 농업·농촌 혁신 사업과의 비교

구분	기존	개선 방향	내용
정책 대상	기존 농업인	기존 농업인	• 스마트팜 보급+규모화 · 집적화
	-	청년 농업인	•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자금, 농지, 경영회생 지원체계 마련
	-	전후방 산업	•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확산 거점	-	스마트팜 혁신 밸리	• 생산 · 유통, 인력양성, 기술혁신 및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거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 방안」(검색일: 2018. 9. 30)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청년이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과 공동 R&D를 통해 기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이다. 이는 지역재생사업의 혁신 거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위치한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희망할 경우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유휴부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여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스마트팜 확산 방안」, 주간 농업농촌동향 Vol17., 2018.

2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 방안」(검색일: 2018. 9. 30).

스마트팜 창업이나 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자금 지원체계²⁶⁾를 개선하여 창업 안전망을 강화한다.²⁷⁾

3) 지역재생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²⁸⁾

경제적 효율성을 주로 고려한 일반 기업의 경영목표와는 달리 사회적경제는 경제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수축협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적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²⁹⁾이 출현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2-5〉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6)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신보 보증비율 확대, 농식품 벤처펀드 추가 조성 등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스마트팜 확산 방안」. 주간 농업농촌동향 Vol17., (2018), p. 3.

28) 본 절의 내용은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9) 2007년 사회적기업 출현, 2011년 마을기업, 2012년 자활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일자리를 통한 실업 및 빈곤 문제 해결, 소득양극화 해소 등 포용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장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경제 진출 분야 확대’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10개 정책과제³⁰⁾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지역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제는 ‘주거환경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인력 양성 체계 강화’ 등이다. 주거환경 분야의 경우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과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표 2-4〉 주거환경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 지역 활성화사업(도시재생 및 지역재생)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 및 건축 분야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관련 지식 전파
	• 지역주민, 도시·지역 재생 활동가, 청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 지원
	• 도시·지역재생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연계 강화
민간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지원
	• 도시·지역재생 지역 선정 시 주민역량 강화 사업 실적을 평가 항목 반영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8)

30) 주요 정책과제는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 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등이 있다.

지역기반 연계 분야는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어촌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기반 연계 분야는 도시 및 지역재생 사업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에 이어 이를 활용한 연계 비즈니스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착에 따른 고용 기회 확대가 주요 골자이다.

〈표 2-5〉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
	• 유휴 공유재산 대부를 위한 지역영향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부여
농어촌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농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확대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제시 · 확산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역 중점 육성분야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8) 34~35p 재구성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 계획’³¹⁾을 발표하였다. 기존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창업지원에 몰입되어 있어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사회적경제 내 세부분야 전문가 양성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개 부처가 추진하는 5대 전략, 32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31)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검색일: 2018. 10. 5)

이중 지역재생 관련 일자리 과제는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이다.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과제는 사회적경제 취창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입문과정의 확대와 사업화 지원,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6〉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과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창업 입문과정 확대	• 일반 창업입문과정에서 도시재생 ·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개념에 부합하는 분야별 특화 과정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
사업화 집중지원	• 창업지원 대상을 연간 1000팀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 공간 · 컨설팅서비스를 2년까지 제공
체계적인 성장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컨설팅,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장지원센터를 확대 · 조성하여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지원	• 청년 구직인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400 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료: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검색일: 2018. 10. 5)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과제는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 · 지역재생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과정을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 종사자에서 도시 · 지역재생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 국외 정책동향

1) 일본의 지방창생전략³²⁾

지역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은 하향식 지역

32) 자료: 이토 미노루(2015). 전 일본노동정책연구원의 이토 미노루가 발표한 일본 지역고용 창출에 관한 기고를 필자가 요약 정리하였다.

진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산업클러스터계획’부터 지방분권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산업클러스터계획’의 핵심은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통해 신규분야 개척을 도모하는 것이다. 관련 계획을 통해 기업의 기술과 지역 특성을 융합³³⁾하는 19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02년부터는 문부과학성 주도로 각 지역 과학기술 관련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적클러스터창성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기술 원천과 지역 내·외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18개 지역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총무성은 ‘지방응원프로그램’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정 조치를 통해 상향식 지방창생 정책에 대한 지원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1차 사업(1,181개 단체 응모)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2차 사업(1,802단체 응모)을 통해 일본 내 기초자치단체 90% 이상이 응모하였다. 지방응원프로그램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은 ‘청년자립지원 프로젝트(110건)’, ‘기업입지촉진프로젝트(527건)’, ‘정착촉진프로젝트(560건)’ 등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2005년부터 ‘지역고용창출추진사업’을 통해 지역기반 고용창출협의회가 제안한 계획을 심사 선정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³⁴⁾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획·입안·실행하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정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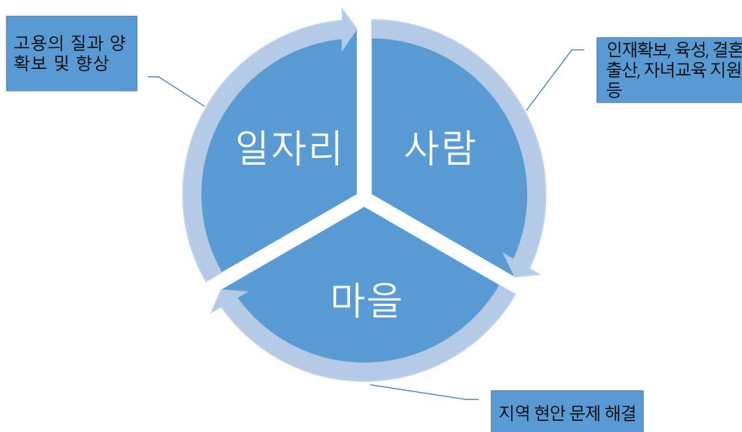
33) 기술 기업의 R&D 추진, 지역의 창업인큐베이터 정비를 통해 내발형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34) 공모형식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수행 보조금 지급.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쇠퇴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 일본창성회의가 인구소멸 지자체 명단을 발표한 이후, 아베 정부는 지방창생법의 제정을 통해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국가단위 계획 및 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³⁵⁾

지방창생전략의 핵심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이들 간의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다.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구를 유지·결집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의 창출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마을)의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을 확립한다. 2014년 수립한 지방창생전략에 따르면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확보하여 인구안정화와 국내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 1.5~2% 유지가 핵심 목표이다³⁶⁾

〈그림 2-6〉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구조



자료: 하혜영·김유정(2016), p. 1 재인용

35) 하혜영 외, 2016 p.1

36) 하혜영 외, 2016 p.1

지방창생통합전략은 5개 중점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점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 2-7〉 지방창생통합전략 5개 중점 분야

구분	내용
① 고용	• 지역산업의 고용창출, 인재육성 • 농업, 관광, 복지 산업기반 강화
② 이주	•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 • 기업 이전, 지방채용, 원격근무 촉진 • 지방대학 활성화
③ 육아	•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속적인 지원 • 다자녀가구, 3대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④ 행정의 집약과 거점화	• 거점도시의 공공시설·서비스 집약 • 중산간지 등의 작은 거점에서의 생활 지원
⑤ 지역 간 연계	• 거점도시와 근린 기초자치단체의 연계 추진

자료: 이토 미노루(2015), p. 26

우선 고용(일자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지방에 청년일 자리를 30만개까지 창출하는 것이며, 2018년 3월 기준 18만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고용 전략의 재정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인재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³⁷⁾

둘째, 거점도시에서 지방으로 거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쿄 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도쿄에서 지방 전출을 4만 명 늘리며, 지방에서 도쿄지역으로의 진입은 6만 명 감소시켜 도쿄권의 지방 전출입 균형을 맞춘다. 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주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이전 및 지방채용 등을 촉진시키며 지방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 대학 활성화에 나선다.³⁸⁾

37) 내각관방(2018. 3. 6).

38) 내각관방(2018. 3. 6).

셋째, 육아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 지표로는 95%의 부모들이 희망 자녀수 2.12명에 도달하게 하는 것과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직장 복귀율을 2020년까지 55%로 향상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고용 대책과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³⁹⁾

넷째, 지역의 소규모 거점의 형성과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간의 광역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⁴⁰⁾

2) 유럽의 공동체 주도형 지역재생 정책

대표적 유럽의 지역재생 정책은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AFRD)을 모태로 한 마을재생(Village renewal)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약 2만 7천개의 농촌마을이 관련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역 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⁴¹⁾ 마을 재생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문화 관련 사업 및 지역 개발 및 인프라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8〉 마을재생사업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 내용
문화 관련	• 문화 유산에 대한 보전과 보호
	• 문화재 관련 사업
지역 개발 및 인프라 정비 관련	• 공공 장소의 정비
	• 지역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경제개발,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자료: Pijanowski(2016), pp. 165-172 관련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39) 이토 미노루(2015)와 하혜영·김유정(2016)의 발표 내용 종합.

40) 이토 미노루(2015)와 하혜영·김유정(2016)의 발표 내용 종합.

41) Pijanowski(2016), pp. 165-172.

〈표 2-9〉 마을재생사업 주요 사업 영역

구분	사업 영역
문화 관련	• 문화자원에 대한 유지, 보수, 개선에 관한 연구와 투자
지역 인프라 관련	•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유지에 관한 투자

자료: Pijanowski(2016), pp. 165-172 관련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제3절 어촌사회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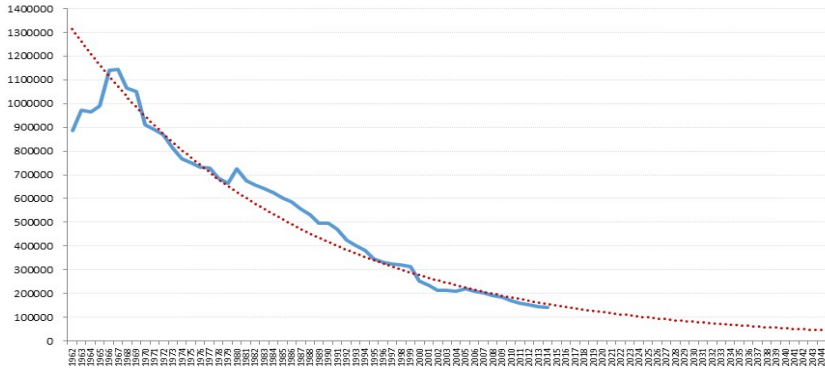
1. 인구구조의 변화

1) 어가인구 감소

우리나라는 1차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1970~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어촌사회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가인구는 1967년에 1,140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기준 121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2년에는 어가인구 100천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어촌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교통 등의 접근성과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어촌은 인구감소를 넘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서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2-7〉 어가인구 추이 및 전망(1962~20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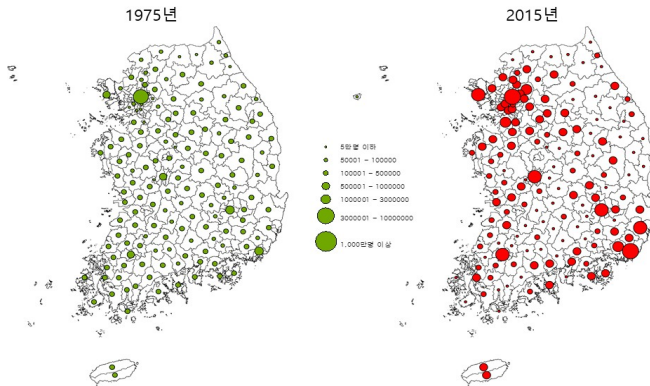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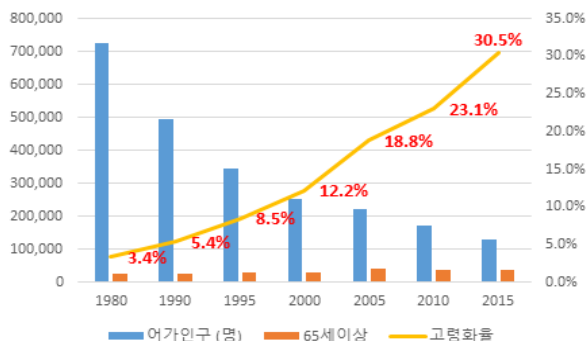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18. 10.17)

2) 어촌사회 초고령화

어촌사회 고령화는 청년층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층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율은 1980년 3.4%에서 2000년 8.5%로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으로는 30.5%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지역쇠퇴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림 2-8〉 인구이동(1975~2015년) 및 어촌사회의 고령화 현황(1980~2015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가통계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3) 인구소멸의 위기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가임기 여성인구(20~39세)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소멸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연안어촌의 405 개소 읍·면·동지역 인구를 사용하여 지역소멸 위험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10>과 같다. 섬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이 114개 읍면동 가운데 73개소(64.0%)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 부산, 울산, 제주는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어촌 지역소멸 위험지수(2015년)

단위: 개소

구분	0.2 미만*	0.5미만**
강원도(36)	6	21
경기도(6)	-	1
충청남도(26)	16	22
전라북도(19)	13	16
전라남도(114)	73	98
경상남도(75)	24	45
경상북도(34)	12	25

구분	0.2 미만*	0.5미만**
부산광역시(40)	-	9
울산광역시(8)	-	-
인천광역시(26)	9	17
제주특별자치도(21)	-	10
합계(405)	153	270

주: * 0.2미만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을 의미

**0.5미만은 지역소멸 위험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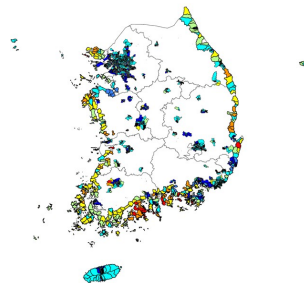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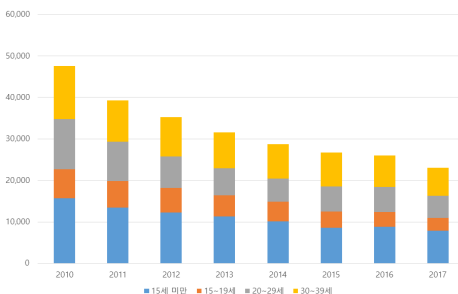
2. 지역재생 주도할 인력 부족

1) 청년층의 부족

(1) 어촌사회 청년층의 인력 감소

어촌사회의 청년층 인구 현황은 <그림 2-9>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연령별 어가인구 중 39세 미만의 연령대를 보면 2010년 기준 어가인구 전체 171,191명 중 47,622명으로 27.8%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은 어가인구 121,734명 중 39세 미만의 어가인구는 23,102명으로 19.0%로 5명 중 1명이 39세 미만으로 청년층의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림 2-9〉연령별 어가인구 현황(2010~2017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어촌공동체 경쟁력 약화

어촌공동체의 핵심적인 주체인 어촌계의 연령별 분포 여건에서도 청년층의 부족한 여건은 잘 나타나 있다. 어촌계 연령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61~70세 39,645명(30.8%)으로 가장 높았고, 51~60세 34,981명(26.9%), 71~80세 25,201명(20.2%), 50세 미만 19,103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어촌공동체가 어촌재생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젊은층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표 2-11〉 어촌계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50세 미만	51~60세	61~70세	71~80세	80세 이상
어촌계 원수	129,876	19,103	34,981	39,645	26,201	9,646
비율	100.0	14.7	26.9	30.8	20.2	7.4

자료: 수협중앙회(2017) 어촌계 분류평정 내부자료

2) 귀어·귀촌 등 신규인력 유입의 한계

(1) 청년 귀어·귀촌 현황

도시민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신규인력의 유입도 귀농·귀촌에 비해 노동환경, 어업기반 구축, 수협 및 어촌계 가입 등 제약요인이 많아 유입인력도 많지 않다. 연령별 귀어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0.3%로 가장 많고, 40대 24.7%, 39세 이하 19.5%순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의 청년 귀어인은 2013년 기준 150명으로 전체 귀어인 가운데 21.7%이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에는 18.7%인 188명으로 나타났다.

〈표 2-12〉 연령별 귀어귀촌 현황(2013~2016년)

단위: 명, %

구분	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귀어인 (비율) 3,746 (100.0)	731 (19.5)	924 (24.7)	1,285 (34.3)	628 (16.8)	178 (4.8)
2016년	귀어인 (비율) 1,005 (100.0)	188 (18.7)	220 (21.9)	337 (33.5)	203 (20.2)	57 (5.7)
2015년	귀어인 (비율) 1,073 (100.0)	207 (19.3)	253 (23.6)	398 (37.1)	176 (16.4)	39 (3.6)
2014년	귀어인 (비율) 978 (100.0)	186 (19.0)	270 (27.6)	320 (32.7)	147 (15.0)	55 (5.6)
2013년	귀어인 (비율) 690 (100.0)	150 (21.7)	181 (26.2)	230 (33.3)	102 (14.8)	27 (3.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귀농·귀촌인 통계」,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지역별 청년 귀어·귀촌 현황

청년 귀어인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귀어인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지역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낚시어업과 양식어업(전북 등)이 발달한 충남과 전남지역의 귀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남과 전남지역의 청년 귀어는 지역적인 쏠림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9세 이하 귀어인 비율이 전체의 약 7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지역별 청년 귀어 현황(2013~2016년)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계	291	434	436	393	1,557
부산	1 (0.3)	6 (1.4)	0 (0.0)	0 (0.0)	7
인천	11 (3.8)	15 (3.5)	13 (3.0)	11 (2.8)	5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울산	1 (0.30)	1 (0.2)	4 (0.9)	2 (0.5)	8
경기	1 (0.3)	7 (1.6)	4 (0.9)	7 (1.8)	19
강원	5 (1.7)	12 (2.8)	22 (5.0)	8 (2.0)	47
충북	1 (0.3)	7 (1.6)	0 (0.0)	0 (0.0)	8
충남	90 (30.9)	117 (27.0)	131 (30.0)	113 (28.5)	451
전북	52 (17.9)	44 (10.1)	30 (6.9)	31 (7.8)	157
전남	82 (28.2)	137 (31.6)	168 (38.5)	168 (42.4)	555
경북	9 (3.1)	21 (4.8)	7 (1.6)	7 (1.8)	44
경남	30 (10.3)	49 (11.3)	51 (11.7)	42 (10.6)	172
제주	8 (2.7)	18 (4.1)	6 (1.4)	7 (1.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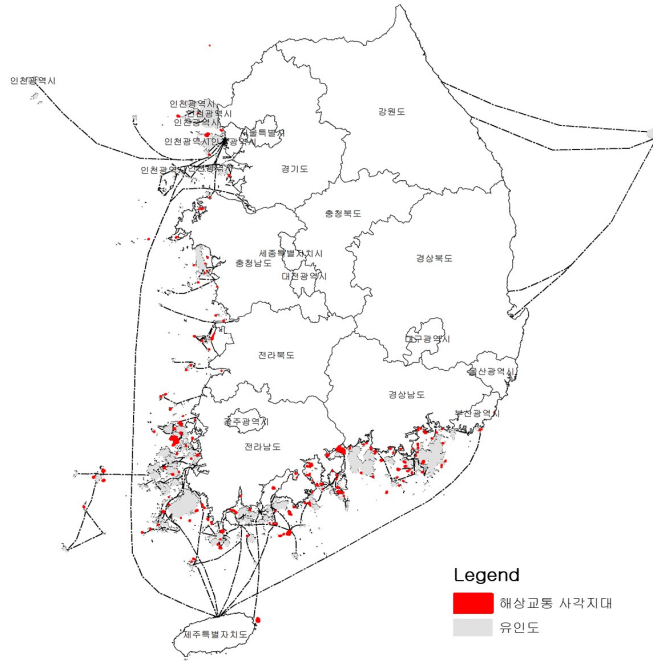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어업지역의 공공서비스 취약성

1) 열악한 정주여건

어업지역 내 여객선, 차도선 등 해상교통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은 6개 시·도 53개소 나타났으며, 정주민구는 1,116명으로 섬당 2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53개소 섬 지역은 인구규모가 작은 부속섬으로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어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3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안전에도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림 2-10〉 연안여객 항로



자료: 박상우 외,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41

〈표 2-14〉 해상교통 사각지대 섬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해상교통 사각지대	섬 인구현황
인천	3	63
충남	6	123
전북	4	125
전남	29	566
경남	9	219
제주	2	20
계	53	1,116

자료: 저자 작성

2) 낮은 삶의 질 만족도

(1)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표 2-15〉는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삶의 질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7대 부문에서 어촌지역은 모든 영역에서 농촌지역,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상대적으로 열위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어업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제약성에 기인한다. 특히, 어촌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지역재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표 2-15〉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 분	보건·복지	정주생활 기반	안전	교육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어촌지역	4.98	5.06	6.19	3.65	4.61	3.58	5.89
농촌지역	5.84	6.09	6.46	5.32	4.76	4.58	5.72
도시지역	7.08	7.40	6.93	6.77	5.70	6.55	6.41

주: 지역주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10점 만점 평가

자료: 해양수산부(2018a), p. 139

(2) 어업지역의 부문별 삶의 질 평가

어업지역의 부문별 삶의 질 평가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크게 나타났던 정주생활기반,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부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생활기반은 생활서비스, 대중교통(해상·육상)의 이용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특히 생활서비스는 소매점(생필품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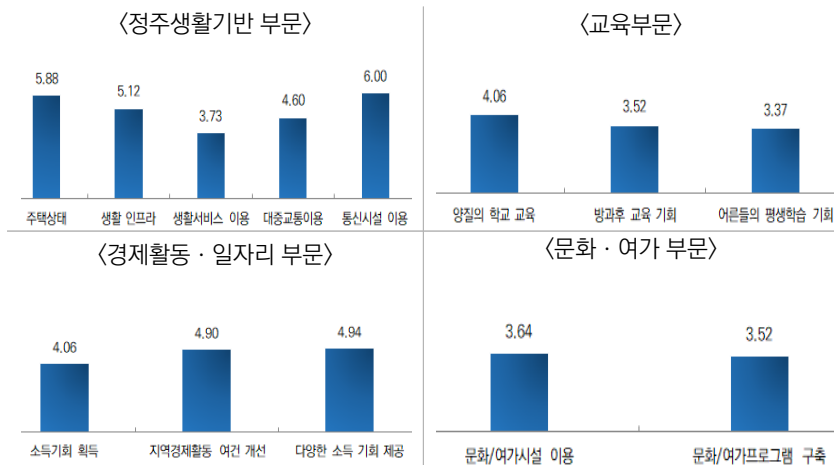
목욕탕, 이·미용실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부분은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 정규교육 이외에 사교육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학습의 기회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경제활동·일자리 부분은 어업지역 내 일자리 확보 어려움, 소득원 창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어촌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품개발, 새로운 판매 방식, 시장·판로개척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는 어업지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 여가 서비스의 전달체계, 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11〉 부문별 어업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



자료: 해양수산부(2018a), pp. 142~148

3) 유희공간 및 유희시설의 증가

어업지역은 수산업 쇠퇴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어항, 수산업 기능시설, 어촌개발 지원시설, 폐교 등 유희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표 2-16>은 어업지역 내 유희공간을 파악한 것으로 유희어항 716,839㎡, 미활용 폐교 373개소, 농어촌의 빈집 40만 호 등이 있어 지역재생의 활용공간이 될 수 있다.

〈표 2-16〉 어업지역 내 유희공간

단위: ㎡, 개소, 호

구분	유희공간	비고
유희어항 부지 (국가어항)	716,839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보고서
미활용 폐교	373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빈집	425,788	국가통계포털 총조사주택 2016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수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된 지역주민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시설 가운데 주민의 역량부족, 갈등 등의 원인으로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 어업지역의 수산·어촌개발 유희시설 사례



자료: 저자 직접 촬영

제 3 장

청년일자리 창출 국내외 사례

제1절 국내사례

1. 부산 영도 깡깡이마을 사례

1) 사업개요

깡깡이마을은 부산시 영도 대평동에 위치한 마을로 자갈치 시장의 맞은 편, 영도대교와 남항대교가 맞닿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버선형상의 마을이다.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소가 밀집한 마을로 1970~1980년대 원양어업 붐을 타고 수리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깡깡이마을’이란 이름은 수리조선소에서 배 표면에 녹이 슨 페인트나 조개껍데기를 망치로 두드려 벗겨낼 때 ‘깡깡’소리가 난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며,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긴 마을의 별칭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현재도 200여 개에 달하는 공업사와 선박 부품업체가 대부분 입지하고 있어 조선사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노령화⁴²⁾로 인한 폐공간 증가 및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마을침체로 지역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⁴³⁾ 이러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다양한 예술·역사·문화 공간의 창출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다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3-1〉 갯강이마을 전경



자료: 구글 검색(검색일: 2018. 10. 3)

2) 사업내용

부산시는 낙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사업인 예술상상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갯강이마을은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선정된 지역이다. 예술상상마을은 예술가의 상상력, 주민의 역량 강화, 청년의 유입을 활용하여 낙후된 마을을 예술과 문화를 매개로 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갯강이마을은 2015~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2) 이 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2771명중, 694명으로 약 25%를 차지함.

43) 갯강이 예술마을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3).

예산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부산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사업계획 및 수행을 위한 단체로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을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주민이 협업하여 새로운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 소속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일자리에 고용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역사·문화의 특징을 살리면서 예술을 접목시킨 역사문화마을을 탄생시켰다.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은 갯강이마을의 지역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컨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재생과 관련된 창업컨설팅, 공공예술사업 기획, 마을사업 추진, 마을역량강화, 마을코디네이터 활동, 마을신문 제작,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은 지역주민협의체는 마을커뮤니티센터, 도시민박촌 등의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마을커뮤니티센터 내에 커피숍 등을 운영하여 마을 수익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 갯강이마을 문화예술 사업



자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공식 홈페이지 중 '갯강이 예술마을' 사례(검색일: 2018. 10. 3)

3) 사업성과

사업기간 동안(2015~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효과로는 사무국 상근직 3명, 예술감독 4명, 플랜비문화예술사업 인력 상근직 3명 등 10여명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예술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의 고용효과는 3년 동안 총 88개 단체 200여 명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깡깡이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에세페 스튜디오(e. c. t. studio)⁴⁴⁾ 등 카페, 음식점 등 청년들의 신규 창업도 나타났다. 깡깡이마을 사업은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이 부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기간 동안 추진한 사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지만, 마을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자본의 청년창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문래 예술창작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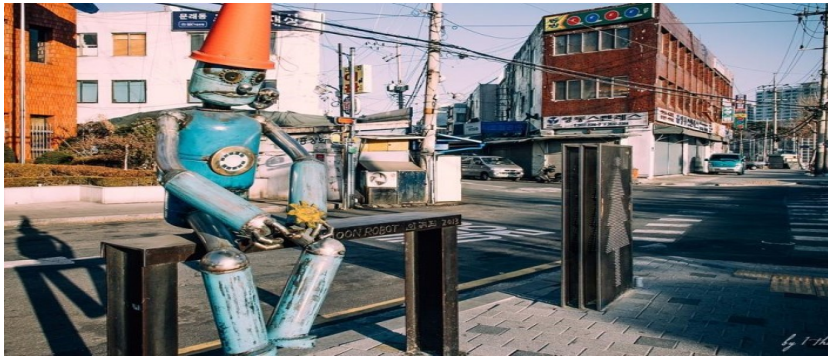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문래 예술창작촌은 서울 문래동 철강거리 내에 위치한 예술단지로 다양한 철공소에 예술가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는 독특한 환경을 지닌 곳이다. 1960~80년대까지 문래 마을은 철강산업의 호황으로 서울 철강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철강산업이 기계화되고 중국산 부품의 유입으로 침체되었고, 더욱이 20년 전 대규모 공장들이 안산 시화공단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빈 공장들이

44) 2018년 5월에 깡깡이마을 생활문화센터 내 오픈하였으며 커피와 디저트 엔틱소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제과제빵사 등 2명 채용(파트타임 1명 포함).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초반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목동으로 이주하면서 인근 변호사 사무실도 공실이 되어 지역침체가 심화되었다.⁴⁵⁾ 그러나 지역침체로 인한 임대료 하락은 2000년 초반부터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이어져 활발한 예술 활동을 낳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었다.

〈그림 3-3〉 문래 예술창작촌 전경



자료: 아트인사이드 '[Opinion] 첫소리 울리는 예술촌, 문래동을 거닐다'(검색일: 2018. 10. 5)

2015년 기준 이 지역의 임대료는 평당 4만 원 정도이고, 문래 창작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의 경우는 임대료가 더 낮아, 서울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여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술가들이 설치한 미술품, 벽화 등을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2) 사업내용

자생적으로 생겨난 예술창작촌 지원과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서울문화재단은 문래 예술공장을 건설하였고, 이를 거점

45) 스카이데일리(2014.6.6.)(검색일: 2018. 10. 5)

으로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창작촌 지원 사업으로 'MEET(Mullae Effect)'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문래 예술창작촌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가/단체 및 기획자, 활동가, 예술공간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화 공동체 확산과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시, 공연, 도서출판, 영화제작, 예술교육, 워크숍, 해외교류, 캠페인 등의 사업 35건이 선정되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기업의 지원도 받고 있다.⁴⁶⁾ 또한 다양한 전시, 공연 등을 활용한 행사도 계획·운영하고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문래 예술창작촌에는 서울문화재단과 더불어 예술창작촌을 지원하는 헬로우문래협동조합이 있다. 헬로우문래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위누'와 '안테나', 청년기업인 '방물단'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조합으로 문래동 예술인의 작품을 홍보·판매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아트페스타 헬로우 문래'라는 타이틀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마켓 분야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마켓 분야는 문래 창작촌 내 작가 및 디자이너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판매·홍보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분야는 대중들이 작가들이 제작한 전시작품을 투어, 예술참여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파티 등을 수행한다. 헬로우 문래 사업은 2013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46) 문래예술공장 공식카페(검색일: 2018. 10. 5).

〈그림 3-4〉 문래 예술창작촌 예술인 지원 사업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중 우리동네정보(검색일: 2018. 10. 5)

3) 사업성과

현재 문래 예술창작촌에는 약 300여 명의 예술가가 100개 정도의 작업실에서 예술활동 중이며 문래창작촌 내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기획함으로써 지역 내 예술생태계 기반 확보 및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개별 예술가가 문래창작촌 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 활성화를 통해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형성되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2절 국외사례

1.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정(直島町) 사례

1) 사업개요

나오시마정은 가가와 현 내 27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지역 내 구리제련소와 함께 성장되어 온 곳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 후퇴로 구리제련소가 쇠퇴하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나오시마 프로젝트(Naoshima Project)’를 추진하며 낙후된 섬의 이미지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섬으로 변화시켰다.

전성기에 비해 1/10 정도로 줄어든 현 내 12개 섬의 인구 및 무인도 서화를 우려한 지자체와 지역출신 기업가 후쿠다케가 경영하는 학습지 교육기업 ‘베네세(Benesse)’의 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가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Art Setouchi Triennale)를 통해 지역 재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림 3-5〉 2016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포스터



자료: 세토우치예술제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5)

2) 사업내용

(1) 지역재생을 위한 외부 투자

베네세가 100% 출자한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호텔인 베네세 하우스를 중심으로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Art Site Naoshima)’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으로 약 180여 명을 고용하였다.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성공은 주변 7개의 섬으로 예술프로젝트를 확대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발전하였다.

(2)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예술제를 주도한다. 추진위원회는 지자체를 포함해 경제단체, 국가관계기관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자금 및 운영 지원과 지역주민 관리 업무를 맡는다. 나오시마 섬을 중심으로 인근의 이누지마, 데시마, 쇼도시마, 오기지마, 메기지마, 오시마, 다카마쓰에 미술관(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 이에(家) 프로젝트, 뮤지엄, 목욕탕, 호텔 등의 시설을 미술과 접목했으며 전통 축제, 민가 작품 전시, 휴교와 빈집을 활용한 예술프로젝트, 주민참여 미술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오시마정에서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직원 8명을 채용하고 있다.

(3) 문화예술과 지역을 연계한 재생

데시마(豊島)는 세토내해의 풍광과 채광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한 데시마 미술관 외에도 미술관 주위의 들판에서 도노쇼 마을 주민과 라이스 테라스 보호를 위한 모임이 함께 한 ‘밥 테라스 프로젝트’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베네세 프로젝트의 작품인 ‘섬 부엌(島キッチン)’에도 국제예술제 기간에 가가와현의 청년들이 고용되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표 3-1〉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고용

구분		내용
정직원	83명	베네세 호텔 직원(호텔 레스토랑, 호텔 프론트, 샵, 카페 직원, 레스토랑 조리, 호텔 시설관리, 마사지사, 인사·경리총무 등)
계약직원		
아르바이트	100명	레스토랑 서비스·설거지·조리보조, 뮤지엄 카페, 베네세 하우스 샵 운영, 이에 프로젝트 운영, 호텔 객실 청소, 호텔 내 주차 및 현관 관리

자료: 신순호·박성현(2013), p. 226

3) 사업성과

2010년 개최된 제1회 국제예술제는 약 93만 8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 제2회 국제예술제는 107만 명이 방문하였다. 2015년 설문조사⁴⁷⁾ 결과에 의하면 국제예술제 거점 지역인 다카마쓰의 숙박객수는 전년 대비 10~30%가 증가했으며 쇼도시마(小豆島)는 최대 30%가 증가하였다.

오기시마(男木島)의 경우 국제예술제 개최 이후 U턴과 I턴이 증가하여 폐교되었던 소학교, 중학교가 2014년 7월부터 다시 개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나오시마정의 인구는 예술제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작고 세대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분가와 핵가족화가 지속 발생하는 한편 숙박업·식당업의 증가와 함께 젊은이들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국제예술제의 활성화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47)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추진위원회 면담조사 자료(2015년).

국제예술제 개최로 섬들을 이어주는 선로 교통편도 모든 항로에서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선로이용자는 전년 대비 138.1% 증가했으며, 쾌속마린라이나 이용자도 104%가 증가하였으며, 공항 리무진 이용률과 다카마쓰항 지하주차장 이용률도 증가해 국제예술제를 통한 경제효과가 있었다.

〈그림 3-6〉 섬의 부엌



자료: 데시마(豊島), 저자 촬영.

2. 일본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 사례

1) 사업개요

시마네현 아마정(海士町)은 섬 지역으로 1950년 7,000명에 달하던 인구가 2010년 2,374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율은 38.9%로 전국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한 반면 20·30대 인구비율은 낮아 신생아는 연간 10명 전후에 불과했다(2010년 국세조사). 대부분의 젊은이는 일을 찾아 고교 졸업 후 섬을 떠났으며, 이러한 지속적 인구 유출은 다양한

지역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아마정은 섬 자립을 위해 2004년 3월 ‘자립, 도전, 교류’를 키워드로 한 「자립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과 행정의 개혁, 산업진흥책, 주민 주도 종합계획 수립, 장래인재 육성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사업내용

(1) 외부 교류와 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립촉진계획」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1차 산업 기반의 신산업 발굴로 고용을 통해 사람을 증가시켜 섬 자립을 꾀하는 것이었다. 2005년 4월 조직된 ‘인간력추진프로젝트’는 이에 근거한 것으로 산업 만들기과 인간 만들기를 두 축으로 외부인재를 활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외국인유학생 초청 여름학교, 아마 중학교 수학여행의 히토즈바시 대학 발표, 도쿄 청년기업가를 초청해 섬의 농어업자와 교류하는 출장수업 ‘AMA왜건’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재생에 공감하는 의욕 있는 외부의 I턴을 증가시켰다. 또한 1998년부터 지속된 상품개발연수생 제도(1년 계약)를 통해 지역자원의 상품화에 외부인재를 활용하여 낯선 사람의 관점에서 섬의 매력을 발굴하기도 했다.

(2) 미래에 투자, 사람 만들기

저출산으로 역내 현립 오키도젠 고등학교는 1997년 77명이던 입학자가 2008년 28명으로 격감하고 전 학년 1개 반을 운영하는 등 통폐합의 위기에 처했다. 폐교는 가족의 위기이자 인구 감소에 따른 섬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아마정은 (주)소니에서 근무하던

요시모토와 함께 ‘오키도젠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2009년 3월 발표한 ‘오키도젠 고등학교 매력화 구상’은 교원·학생·학교, 학부모·행정·지역, 외부·사회·글로벌의 세 측면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지역출신 학생의 입학률 향상과 외부 입학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마을이 고용한 ‘매력화 코디네이터’가 고교에 파견되어 교원과 함께 상주하며, 지역과제 해결형 학습프로그램, 고교 연계형 공영학원, 섬 유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류 사업을 계기로 정착한 I턴을 프로젝트의 중심 스텝으로 고용하였다.

2010년 4월 학교 연계형 공영학원으로 문을 연 ‘오키국 학습센터’는 지역학생의 학력 향상과 진로 실현을 목표로 ‘꿈 세미나’라는 독자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학생들의 향토애 향상, 주인의식 고취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섬으로 돌아오겠다’는 꿈을 가지도록 했다. 한편으로 현지 학생을 자극하고 이문화나 다양성의 유입을 통한 고교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섬 유학’제도를 신설해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보조하였다. 섬 유학생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 지역 유지가 ‘섬 친척’이 되어 지역과 학생을 연결하였다. 주민 스스로가 고교수업이나 학습센터의 강사로 참여하는 한편 지역 자원을 재검토하고 스스로 지역매력화를 위한 자원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2012년 입학자는 59명(외부 23명)으로 반등했고, 2014년은 전교생 156명과 전체 2학급화를 실현하였으며 2017년 현재 전교생은 189명이 되었다.

(3)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 수립

활력 있는 섬을 만들기 위해 아마정은 지역 만들기 계획 수립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2015년 10월 수립한 「창생종합전략」

(통칭 도전계획)은 향후 5년간 아마정 거주지역이 있는 20~40대를 조건으로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했다. 이후 민간 12명, 행정 8명에 더해 U턴 10명, I턴 10명으로 구성된 ‘내일의 아마를 만드는 모임(통칭 내일 아마)’은 스스로 계획을 실행하는 ‘Mine Project’를 추진하였다.

(4) 외부 교류와 네트워킹

아마정은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외에도 외부를 겨냥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왔다. 단순히 외부 청년을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청년 동료를 만드는 대응 전략을 병행했다.

2008년 1월 설립된 기업 (주)순환은 오키도젠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 구성원의 소개로 섬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창업하게 된 I턴이 창업자이다. 행정에서 위탁받거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촌교류사업, 대기업과 노조의 연수 추진,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와 음악의 전국 홍보 및 상품 통신판매가 주요한 사업 내용이다. 아마정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낙도 부엌’은 도쿄 카구라자카에 레스토랑을 오픈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낙도 부엌은 아마정과 전국 낙도를 연계해 섬의 식재료를 구매하여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다. 2009년 10월 설립 당시에는 낙도의 식재료를 배달하는 것이었으나 수도권 이벤트출점, 레스토랑 시도 등을 거듭하며 구하기 힘든 식재료를 확보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축한 타지의 섬에 상품판매선을 확보함과 아울러 볼거리를 위한 홍보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 만들기의 일환으로 오키국 학습센터가 내걸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함께 2015년 문부과학성 수퍼 글로벌 스쿨 인증을 받은 오키도젠 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연수, 2016년부터는 희망학생 대상으로 러시아, 에스토니아, 부탄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 사업성과

다양한 산업진흥책의 결과로 여러 산업의 매출고와 고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아마정의 인구구조도 변화가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이민자는 483명(326세대)이었으며 정착률이 약 50%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로 2010년 2,374명이던 인구는 2015년 2,354명으로 아마정의 인구가 유지되었다. 수치상의 인구는 감소했으나, 40대 미만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입 결과로 실질적인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었다.

〈표 3-2〉 아마정 신산업 판매고 및 고용자 수 변화

단위: 천 엔, 명

산업	항목	설립 첫 해	자립촉진계획 10년 (2014년)
굴 봄내음 ⁴⁸⁾ (2002년~)	판매고 고용자수(파트 포함)	15,000 13	79,300 21
농수산물직판장 관련시설(2002년~) ※ 소금 포함	판매고 고용자수(파트 포함)	125,000 12	252,120 23
CAS ⁴⁹⁾ 상품 (2005년~)	판매고 고용자수(파트 포함)	27,000 14	158,510 25
오키 소(2006년~) ※ 비육우	판매고 고용자수(파트 포함)	55,000 6	143,412 10

자료: 아마정 내부자료, 일본 지방창생전략분석 p.84

48) 봄내음은 아마정에서 봄부터 초여름까지 한정 생산되는 굴 브랜드로 초치지 시장 및 수도권에 인기를 얻고 있음. 종묘시설과 출하시설은 국가보조사업을 활용해 시가 정비하고 운영이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공설민영방식임.

49) Cells Alive System으로 세포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시스템임. 낙도 농어업자 유통 제약 극복을 위해 제3섹터가 설비투자하는 방식으로 도입함.

2) 사업내용

(1) 지역자원을 살리는 가치의 재조명

오카야마현 쓰야마시는 빈집을 민박으로 등록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마을 내 빈집 증가는 방화, 붕괴, 치안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마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마을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은 일반 숙박업소보다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을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주민협동을 위한 마을 자치조직

쓰야마 주민들은 민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모테나스’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오모테나스는 ‘손님을 대접하다’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로 전통의상 체험, 모내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광객들에게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주민 134명이 공동출자한 주민 주유소를 설립하여 주유 판매 외에도 생필품 및 비료 등을 판매하며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

3) 사업성과

쓰야마시 사례는 빈집을 마을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고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문화적 요소가 관광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삼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빈집과 예술을 접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숙박사업법」 등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제공으로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나 시트를 교체해주는 서비스, 프런트에서의 숙박객 상담 업무, 외국인 관광객 상대 및 안내 등의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독일 빌트폴트스리드(Wildpoldsried) 지역 사례

1) 사업개요

빌트폴트스리드(Wildpoldsried)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위치하고 있고 총면적 21.35㎢에 2,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소규모 도시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 및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빌트폴트스리드는 독일 남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젊은 인력의 유출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지역침체도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빌트폴트스리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강구하게 되었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을 새로운 시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지역 지원사업인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생산 및 절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시 소비량의 7배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하여 전력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 및 청년일자리를 유치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림 3-8〉 빌트폴트스리드 전경



자료: 빌트폴트스리드 지역소개자료(검색일: 2018. 10. 5)

2) 신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재생 및 청년일자리 창출

빌트폴트스리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발전을 위한 설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으며 3가지 발전 방법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일부는 시 자체 전기 사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력회사(지멘스)에 매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풍력, 태양광 발전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시스템(IREN2)을 운영하기 위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생산을 통한 수익사업이 마을의 대표 산업이 되자 빌트폴트스리드시는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해 Sonnenbatterie GmbH이라는 전력저장장치 회사를 지역 내로 유치시켰다. 전기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의 저장장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였으며 이 회사의 유치를 통해 외부의 청년일자리 유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3) 사업성과

빌트폴트스리드시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 및 관련사업 홍보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40개가 창출되었고⁵¹⁾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고용되었다. 전기저장기업인 Sonnenbatterie GmbH의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Sonnenbatterie GmbH의 창업초기(2010년) 종사자수는 10명이었으나 2016년 사업성장에 따라 200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종사자수는 400명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로 인한 청년 유입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독일 베를린 미테 지역 사례

1) 사업개요

독일 동쪽에 위치하여 구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인 수도일 뿐, 경제적으로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었다. 이에 베를린 주정부는 슈프레강 주변을 중심으로 2011년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베를린 장벽 옆에 있던 낡은 맥주공장(면적 1만 6000㎡)을 개조하여 2013년 완공하였다. 사업초기 트위터, 모질라, 사운드클라우드 등 IT기업 25개 회사를 유치하여 입주시켰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를린 지역에 스타트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스타트업 단지 조성 5년 만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스타트업 창업지역으로

51) Renewable Energy World, "A Small Town in Germany Becomes a Testing Ground for Smart Grid", (검색일: 2018. 9. 28).

성장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지역은 IT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패션, 음악, 음식 등의 폭넓은 분야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래 성장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⁵²⁾

〈그림 3-9〉 팩토리 베를린 전경사진



자료: 구글 검색 (검색일: 2018. 10. 5)

2)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재생 및 청년일자리 창출

베를린 지역은 통일 이후에도 매우 침체되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건물들도 이미 오래되어 문을 닫거나 노후화된 공장 및 건물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임대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⁵³⁾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활용하여 베를린 주정부는 낡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물가 및 임대료가 저렴한 베를린 지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욱이 청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

52) 조선일보, “베를린,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다”(2015.4.6.)(검색일: 2018. 9. 27).

53) 런던지역에 비해 물가는 약 30%, 임대료는 70% 저렴함.

도로 교통, 인터넷, 주거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여 베를린 지역을 대도시의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높은 생활 수준에 비해 물가가 싸고 젊은 도시로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베를린은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2017년)에서 약 4년 만에 7위에 올라 영국이 빠진 유럽연합에서 스타트업의 새로운 허브로 성장해가고 있다.⁵⁴⁾

〈그림 3-10〉 2017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자료: KET 웹보고서 「2017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 리뷰」 인용(검색일: 2018. 10. 5)

3) 사업성과

현재 베를린 지역의 스타트업 개수는 2,992개로, 독일 전체의 (6,541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독일 스타트업의 투자금 5조 6,000억 원 중 70%가 베를린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⁵⁵⁾ 컨설팅 기업인 매킨지(McKinsey)에 의하면 2020년에 베를린에서

54) Startup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p. 30.

55) 한국일보, “브렉시트로 주춤한 런던제치고.. 베를린, 블록체인 스타트업 열기 거세져” (2018.7.10)(검색일: 2018. 9. 27).

스타트업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평가 포털인 라무디(Lamudi)는 베를린의 스타트업 수가 5년 안에 영국 런던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6. 영국 콘월(Cornwall) 지역 사례⁵⁶⁾

1) 사업개요

영국 잉글랜드 지역 남서부 끝에 위치한 콘월(Cornwall) 지역은 긴 해안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잉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해변의 각종 시설의 노후화와 관광 상품 개발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며 청년의 지역이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콘월 지역단체는 새로운 컨셉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해변에 위치한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미술관의 증축 및 보수를 결정하였다. 이 미술관 역시 해변에 위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술관의 노후화 및 미술전시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방문객 수가 급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술문화시설을 활용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56) 박상우 외(2017), pp. 65~66.

〈그림 3-11〉 영국 콘월 지역 전경



자료: 영국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박물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5)

2) 예술·문화시설 활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콘월 지역단체는 영국의 연안·어촌발전기금(CCF: Coastal Communities Fund) 약 57억 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미술관 규모보다 2배 이상 크게 증축하였다.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반영한 미술관에는 체험형 스튜디오, 확장된 미술 전시관, 방문객 정보센터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규모에 맞추어 그에 맞는 예술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20세기 미술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예술가 전시회,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였다. 특히, 미술관은 20세기 미술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여 이 미술관이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미술 산업 관련 일자리(미술전시, 기획, 해설 등)를 만들었으며, 그 외에 미술관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식당, 매점 등)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분야 전문가와 이와 관련된 기관을 콘월 지역에 유치하기도 하였다.

〈그림 3-12〉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



자료: 영국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박물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5)

3) 사업성과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는 미술관 증축을 완료하고 2017년 9월 재개장하였으며, 미술관 규모의 확대로 인해 관람 규모가 12만여 명에서 25만여 명 수준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술관 전시관련 및 운영·관리 일자리와 미술관 내 레스토랑, 매점 등의 서비스로 창출되는 청년일자리 수는 250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15억 정도의 사업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청년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시사점

1.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재생

침체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에, 그 지역의 역사·문화 또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사업 및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키고, 관련 서비스사업을

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적 지역재생 방법이 청년 중심의 지역 활성화의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래 예술창작촌의 사례를 보면, 철강공장 지역에 유입된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생산되는 철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노후된 공간에 철강공장의 특징을 살리는 벽화를 그리는 등 오래된 산업에 예술을 접목시키고 표현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부산의 갯강이마을도 지역의 오래된 산업인 조선업을 다양한 예술작품과 문화 활동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새로운 산업발굴을 통한 지역재생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역 내에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기존의 지역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 발전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산업보다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참여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독일 빌트폴트스리드시의 스마트에너지 빌리지 사업은 이러한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기존의 지역 구성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신산업 관련 업무를 청년들이 마을로 들어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유희시설 · 공간 리노베이션을 통한 지역재생

지역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은 노후지역 및 유희공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여 지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

사업의 하나로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가들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노후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노베이션하고 이곳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실현시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은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청년일 자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일 미테지역의 팩토리 베를린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지역의 노후공간을 청년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세계 각국의 청년스타트업을 유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휴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민박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관광사업의 추진과 함께 청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4.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 대응

사례들은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과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공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정 사례는 지역주민이 자립촉진계획, 창생종합전략 등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였

으며 지자체는 민간의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해 실행을 뒷받침했다. 나오시마정 사례 역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례 모두 사업의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성, 추진해 나가면서 정부가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해 나가는 공조체계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형태를 통한 지역재생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가치를 극대화·지속화시키는 통합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자율적 재원에 의한 사업 실시로 마을 가치에 부합하는 외부의 청년인재를 유입시키고, 지역재생의 가치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에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며, 민간이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민들의 오너십 향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추동하도록 한다.

5.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과 일자리의 연계

지역재생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의 해결과 일자리가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자리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재생 사례들의 대부분은 경기침체, 인구 감소 및 유출, 빈집, 고령화, 낙후 시설 등 현재 어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나오시마정, 아마정, 빌트폴트스리드는 인구 유출·고령화에 따른 지역침체라는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깡깡이마을, 문래 마을, 쓰야마, 미테, 콘월은 빈집 및 낙후되거나 방치된 유휴시설들이 현안의

문제였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한편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외부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터전을 제공하여 마을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과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안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력과 사업이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어촌 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쇠퇴하고 있는 어촌의 여건에서 청년일자리 제약요소를 진단하고, 이를 지역재생의 기제와 청년들의 일자리 니즈를 고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요소를 도출하면 〈그림 4-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일자리 제약요소에 대응하여 i)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다각화 및 첨단기술의 융·복합, ii)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iii) 청년인재 양성, iv) 사회혁신 추진을 제시하였다. 우선 어촌사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은 경제여건, 노동여건, 지식정보 전달체계, 삶의 질 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청년들의 일자리 니즈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촌사회에서 청년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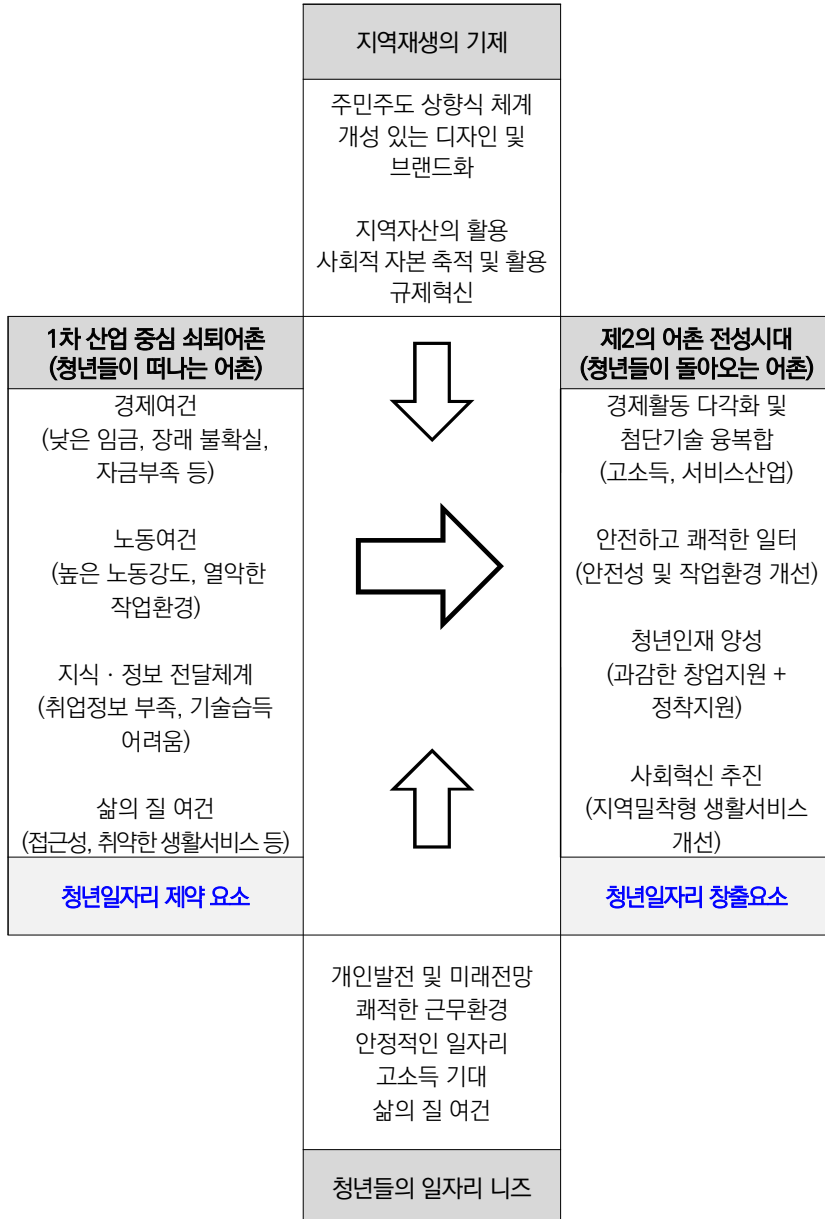
창출하는 방향성은 제약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촌사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은 쇠퇴하고 있는 어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지역재생의 기제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즉, 어촌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어업공동체, 유·무형의 지역자산, 규제 등 기제는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어촌의 일자리 여건과 청년일자리 니즈가 상호 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코세대(Echo Generation)⁵⁷⁾로 대표되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전략 및 추진과제에 반영해야 한다.

57)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으로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붐세대(1955~1963년)의 자녀세대를 말함.

〈그림 4-1〉 어촌 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

1) 5대 추진방향 설정

어촌 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는 제2장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동향과 어촌사회 진단, 제3장의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던 시사점을 토대로 i) 정부 및 지자체의 마중물 지원 강화, ii)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iii) 청년층의 창업·창직 맞춤형 지원, iv) 어촌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연대·협력 기반 마련, v) 어촌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핵심적인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2〉 어촌의 청년일자리 창출 5대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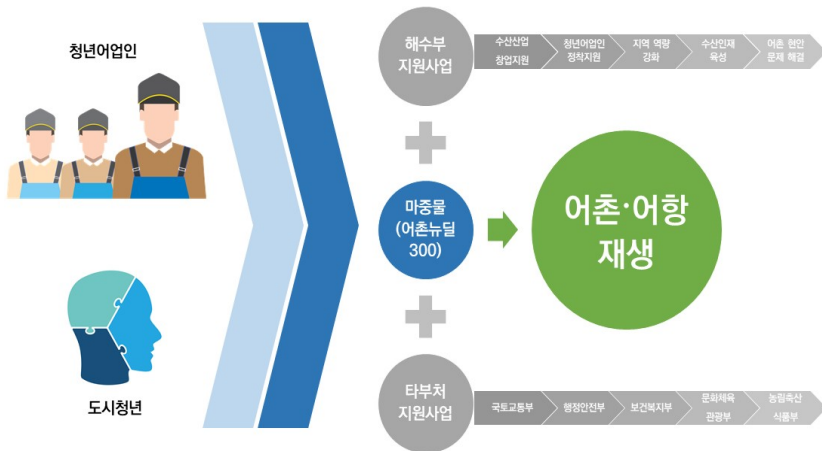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 추진방향 1: 마중물 지원과 연계사업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는 어촌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하드웨어와 인적 요소 등 사회혁신의 유발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어촌재생의 마중물 사업은 해양수산부 또는 다른 부처의 단일사업 추진만으로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의 완결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어촌재생과 관련된 지원사업(수산업 창업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지역 역량강화, 수산업체 육성, 어촌 원인 문제 해결 등)과 타 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림 4-3〉 마중물 사업과 연계사업 추진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추진방향 2: 어촌과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해소

어촌사회로 신규인력을 유입시키는 해양수산부 정책은 귀어·귀촌 지원, 수산인재 양성 등 어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제한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어촌사회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창출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특히, 수산업이나 어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지원정책을 통해서는 어촌사회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일자리 니즈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없다. 어촌과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에 필요한 청년어업인 매칭과 도시청년들이 희망하는 창업과 창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해소해 나가야 한다.

(3) 추진방향 3: 청년 창업·창직 맞춤형 지원

어촌사회의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창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창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창직 맞춤형 지원은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중간지원조직과 일선 지자체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산·어촌부문에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4) 추진방향 4: 어촌공동체 역량강화와 외부와의 연대·협력 기반 마련

어촌 지역재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재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주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

하기 위해서는 지역재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대·협력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어촌사회는 어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공동체이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공동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⁵⁸⁾가 존재한다. 어촌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이 이완·해체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농·산촌 등의 지역공동체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가 높다. 즉, 어촌공동체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어 체계적인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어업인의 후생복지, 외부와의 교류·협력,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표 4-1〉 어촌계의 부문별 수행가능 사업

구분	사업내용
수산업 부문	•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 •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생활서비스 부문	• 교육·지원사업 •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금융부문	•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기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8. 9. 12)

58)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구획하고,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

한편,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어촌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⁵⁹⁾이 마련되었다. 동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 요건⁶⁰⁾을 갖추는 경우에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각 부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해당분야의 잠재적인 후보군을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인증 받은 건축·주택분야, 경제활동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같은 지역재생의 마중물사업을 통해 수산·어촌분야로 새롭게 유입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촌공동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림 4-4〉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외부와의 협력·연대 추진방향



자료: 저자 작성

59) 법 제13조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법 제1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함.

60)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5) 추진방향 5: 어촌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도시의 20~30대 청년층이 어촌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기회요인을 가지게 되더라도 취약한 생활서비스는 최종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에도 어촌의 입지적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시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익숙한 청년들의 삶의 질 기준에 일정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어촌사회의 취약한 생활서비스를 내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출현 또는 외부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유입시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이고 사회적 가치를 담보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림 4-5〉 어촌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실행방안

(1)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방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실행방안은 마중물 사업지원, 수산산업 창업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등 7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2>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마중물 지원체계에서부터 수산산업 창업, 청년귀어 정착, 지역역량 강화, 일자리 매칭 등 현행 지원사업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어촌 지역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 사업지원은 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비롯하여 일반농산 어촌개발, 특화어항개발사업 등 어촌의 지역재생을 전국 연안지역 내수면 어촌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어촌 지역재생 마중물 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지원사업 간에 연계성을 높여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4-6〉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방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물 실행방안(안)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지원	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8년~, 31개 시·군, 1,214억 원/년 계속, 시도자율편성, 385억 원/년
	어항	특화어항개발사업	'14년~, 국가어항, 3,300억 원 규모
	어촌·어항 통합	어촌뉴딜 300사업	'19~'22년, 300개소, 3조 원 규모
수산업 창업지원	중간지원조직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계속, 지역특화센터(지역테크노파크), 80억 원
	수산업 관련	수산업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계속, 109백만 원, 이자 차액 보조
	귀어인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	계속, 귀어인, 대출지원(3.5억 원)
	해양관광벤처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계속, 사업자공모
청년 어업인 정책 지원	정보전달 및 컨설팅	귀어귀촌 창업박람회	계속, 귀어귀촌종합센터(4억 원/년)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계속, 귀어귀촌종합센터(15.2억 원/년)
	정책지원	귀어학교 개설	계속, 3개소, 개설비(10억 원/개소)
		귀어귀촌 홈스테이	계속, 홈스테이 참여자(8억 원/년)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계속, 지자체, 6억 원(3년간)
	생활안정	청년어업인 영어정책자금지원	'18년~, 100명, 100만 원/월(3년)
지역역량강화		어촌주민 역량강화사업*	계속, 1.5~2.5억 원/년
일자리 매칭		어업인 일자리 지원 / 알자리 정보	계속, 6개소(3.9억 원/년) / 해양수산물 홈페이지
수산업재 육성		수산계교교 특성화사업	계속, 10개교(25.6억 원/년)
		수산계 대학과정 운영	계속, 11개 대학(332.7억 원/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계속, 신규어업인 융자지원(1,200억원 /년
어촌 현안문제 해결	생활환경	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안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계속, 소형어선 어업인(38억 원/년)
	작업환경	수산장비 구입지원 및 임대	계속, 임대·이동수리소(27.9억 원/년)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시범사업	계속, 안전쉼터 20개소(24억 원/년)
	생활복지	가사도우미 지원	계속, 가사도우미(1억 원/년)
		어업도우미 지원	계속, 영어활동 곤란자(4.9억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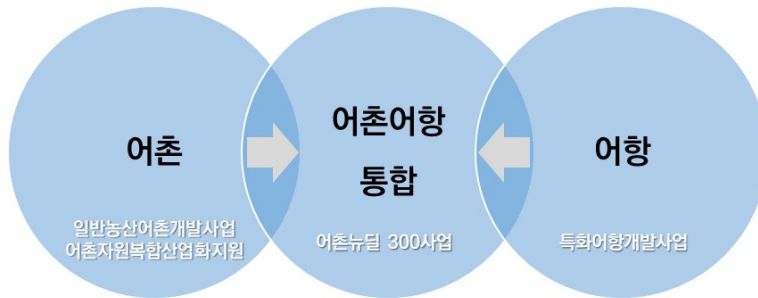
주: * 어촌주민 역량강화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환경정비, 지역
역량강화 예산에 포함

자료: 해양수산물부(2018b)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 마중물 사업지원

어촌·어항 지역재생의 마중물 사업지원은 어촌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정비뿐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독립된 사업구역을 구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ii)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iii) 특화어항개발사업, iv)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어항재생의 대표적인 마중물 사업이다. 이러한 어촌·어항재생 마중물 사업은 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인력육성 등 종합적인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자체,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림 4-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 마중물 사업 영역별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표 4-3〉에서 제시된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재생의 4개 마중물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 지원사업으로 지원 내용, 사업예산 등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어촌)과 어촌뉴딜 300사업은 새로운 사업체계와 추진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수산 유통, 가공, 판매, 관광 등 6차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20억 이상의 사업규모는 해양수산부가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과 성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화어항개발사업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4~2018년)에 근거하여 다기능어항개발(10개소), 청정어항개발(1개소), 아름다운어항(4개소), 어촌역(16개소)에 대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4-3〉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의 마중물 사업 세부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어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18년 이후)	• 권역단위 거점개발(100억 원 이하) • 마을단위 특화개발(20억 원 이하) • 지역 역량강화(1.5~2.5억 원) • 어촌 생활기반정비	전담구역 31개 시·군, 124개 읍·면 국고 850억 원 지방비 364억 원
	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계속사업)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수산식품특화단지조성개보수 • 어촌체험관광지원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사업별 예산규모는 각기 다름
어항	특화어항개발 사업 (2014년 이후)	• 다기능어항개발 • 청정어항개발 • 아름다운 어항 • 어촌역	국가어항(공모사업) 농특화계 국고 100%
어촌· 어항	어촌뉴딜 300사업 (2019년 이후)	• 해양레저형 • 어촌휴양형 • 어촌재생형 • 수산특화형	소규모 항·포구 / 어촌 300개소(공모사업) 국고 70% 2.1조 원 지방비 30% 0.9조 원

주: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상하수도,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자료: 해양수산부(2018b) 지원사업들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수산산업 창업지원

해양수산부의 수산산업 창업지원은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 등 <표 4-4>와 같이 4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⁶¹⁾하여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산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원과 수산벤처기업들의 우수기술에 대해서 사업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수산실용기술개발사업은 수산분야에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과 국민·기업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에 나서고 있다.

셋째, 귀어귀촌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과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총 500억 원 내에서 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4-4〉 수산산업 창업지원 세부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수산창업 투자지원센터	- 기업발굴: 창업기업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기업육성: 제품개발 및 과제발굴, 기업 혁신역량 강화, 단기 실용제품 기술개발 지원 - 마케팅지원: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8년) 5개소 → (21년) 8개소 19년 80억 원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수산 연관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연리 2.5% (2년 거치 3년 상환)

6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수산물유통 기술개발 사업	- 기술개발(첨단 양식, 수산기자재 고도화, 수산 생물 실용화 기술) - 국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융자 500억 원 금융자금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환)

자료: 해양수산부(2018b)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귀어·귀촌 정책에 따라 정보전달·컨설팅, 정착지원, 생활안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보전달 및 컨설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창업박람회와 교육, 컨설팅 등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을 통해 귀어에 대한 관심자와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착지원은 귀어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귀어학교, 귀어귀촌 홈스테이, 도시민 유치지원 등 사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생활안정은 청년어업인이 귀어 초기 기술습득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시작단계에 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은 대부분의 정책이 최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책설계와 집행단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성과평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귀어인의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4-5〉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세부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정보전달 · 컨설팅	귀어귀촌 창업박람회	• 창업박람회 운영비용	4억 원/年 국고 100%
	귀어귀촌종합 센터 운영	• 귀어귀촌인 교육훈련 • 귀어귀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지원 • 우수귀어업인 선정 및 지원 • 귀어 · 귀촌희망자에 대한 상담 · 안내	15.2억 원/年 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정착지원	귀어학교 개설	• 귀어학교 개설비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 교육용 장비)	개소당 10억 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 홈스테이 운영 대가	8억 원, 200명/年 (가구당 200만 원 한도) 자부담 20%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 추진기구 운영비 • 하드웨어 구축비	32억 원/年 시도별 3년간 6억 원 국고 50%, 지방비 50%
생활안정	청년어업인 영여정착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월 1백만 원, 3년간)	40세미만 청년대상 (어업경력 3년 이하) 17.3억 원, 200명/年

자료: 해양수산부(2018b)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라. 지역 역량강화

지역 역량강화는 어촌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밀착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6차산업화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개발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져 수산 · 어촌사업을 지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역량강화는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속성과 추진력의 중요한 동력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현안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참여방안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향후 어촌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다양한 마중물 사업과 연계사업은 지역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주민주도로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그림 4-8〉 지역 역량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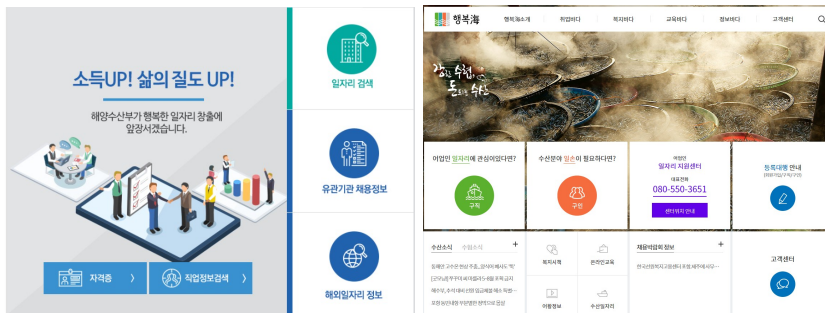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3)

마. 일자리 매칭

수산·어촌분야의 일자리 매칭 지원은 해양수산부 일자리 정보와 수협중앙회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매칭 지원은 일자리 검색, 유관기관·해외 일자리 정보를 다루고 있다. 반면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는 본부와 지역센터 6개소에서 수산분야의 구직,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공하는 일자리 구직정보의 경우 어선어업, 양식어업, 가공업, 유통판매업, 기타

어업 등 수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어촌의 부족한 인력확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자리 매칭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수산관련 서비스업,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등 청년들의 니즈와 부합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매칭 과정을 실시간(Real-time)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림 4-9〉 수산분야 일자리 매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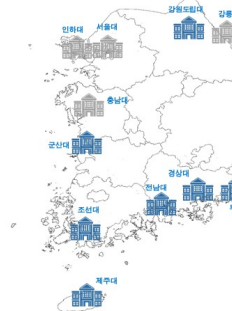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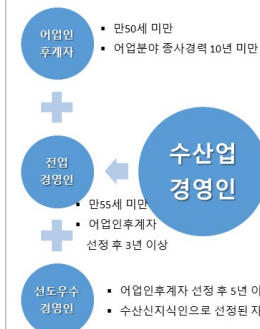


자료: (좌)해양수산부 일자리지정보, (우)수협중앙회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검색일: 2018. 10. 2.)

바. 수산인재 육성

수산인재 육성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표 4-6〉과 같이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수산관련 대학과정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인재양성과 어업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국내외 우수사례 방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은 졸업 후 취업률이 30% 수준으로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인재를 어업현장으로 정착시키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4-6〉 수산업재 육성 지원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10개소)	수산업 관련 대학과정 운영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현장교육 - 강사로 및 교육실습장비 지원	 - 강사로 - 현장방문 - 워크숍 등 교육활동 소요 비용 - 교육교재 구입 등 지원	 - 어업인 후계자 - 만 55세 미만 - 어업분야 종사경력 10년 미만 - 전업 경영인 - 만 55세 미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 수산업 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선도우수 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역량강화 교육 - 수산업 관련 학술대회 - 국내외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 벤치마킹, 기술교류 위한 국내외 우수사업장 방문

자료: 저자 작성

사. 어촌 현안문제 해결

어촌의 현안문제는 안전, 작업환경, 생활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어업작업 중 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수산방비, 어업인 안전쉼터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업인 생활복지 영역으로 가사도우미, 어업도우미 지원을 통해 현장체감형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2) 범부처 실행방안

〈표 4-7〉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지역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 방안을 정리하였다.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관광,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해양수산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어촌 지역재생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과 관련성이 높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의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표 4-7〉 부처별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방안(안)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국토 교통부	생활SOC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 스타트업 연계)
	관광	남해안 관광루트 개발	•경관 관리방안 •전망공간(19년 10개소) •섬 관광 투어상품 개발 •폐교·빈집 등 유휴시설 관광자원화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	섬·해안 관광자원 개발	•해안 산책길, 탐방로 등 조성 •섬의 날 통합·연계 할인 (가고 싶은 섬 33개소 육성)
		생활관광 활성화	•이야기 생활여행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테마 음식관광 개발
	일자리	지역주민 관광역량 강화 및 인력육성	•주민사업체 확대(관광두레) •관광
행정 안전부	생활 SOC	도서종합개발사업	•섬지역 생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축제 청년코디네이터 •관광분야 청년창업가 지원 •관광문화투어파인더
농림수산 식품부	생활SOC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 정주환경 인프라 등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상하수도, 빈집정비 등
	관광	농어촌민박 활성화	•농어촌 민박서비스·안전기준
		농촌관광 플래너	•교육과정 신설, 전문가 양성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실행방안 추진체계

1) 어촌 지역재생과 부처협력 모델 방향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쇠퇴하고 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주환경, 경제활동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취약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유입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창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쇠퇴하고 있는 도시, 농·어촌 지역재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촌 지역재생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계기로 기존 어촌개발 지원 사업과 함께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 지역재생의 마중물 사업만으로는 열악한 어촌의 생활환경, 관광, 일자리 인프라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SOC, 관광, 일자리 등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완결성을 갖춰 사업성과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표 4-8〉 어촌 지역재생의 부처별 실행방안

구분	해양수산부	범부처 연계(안) (국토부, 문광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생활 SOC	관광	일자리
마중물 사업	- 어촌뉴딜 300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 전담구역)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특화어항개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종합개발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 남해안 관광루트개발 - 섬해안 관광자원 개발 - 생활관광활성화 - 농어촌민박 활성화 - 농촌관광 플래너	- 지역주민 관광역량 강화 및 인력육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내용	- 해상교통(접안·계류시설, 편익 등) - 어촌·해양관광 인프라 - 어촌생활환경정비 - 주민역량강화 6차산업화, 소득원 창출	생활환경 인프라	관광인프라 구축	일자리 인프라

자료: 저자 작성

어촌 지역재생은 시범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섬 어촌의 경우 <그림 4-10>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재생 사업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4-10〉 해수부와 범부처 어촌 지역재생의 협력 모델 방향
(제주 비양도, 군산 개야도 예시)



- 해수부(접안 · 안전 · 편의시설, 레저 계류 · 보관시설, 체험프로그램 등)
- 농림부 · 행안부 · 국토부 · 복지부(주거, 도로, 상하수도, 다목적회관, 원격 의료 등)
- 문체부 · 산림청(둘레길 정비, 캠핑장 조성, 생태공원, 휴양림 등)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유형

〈표 4-9〉는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유형을 도출한 것으로 청년일자리의 창출분야와 니즈,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실행 방안 등을 고려하였고, 크게 i) 창의적 융합형, ii) 수산창업형, iii) 어촌 사회혁신형으로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지역재생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규정, 거버넌스, 단계별 로드맵 등 기반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 4-9〉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유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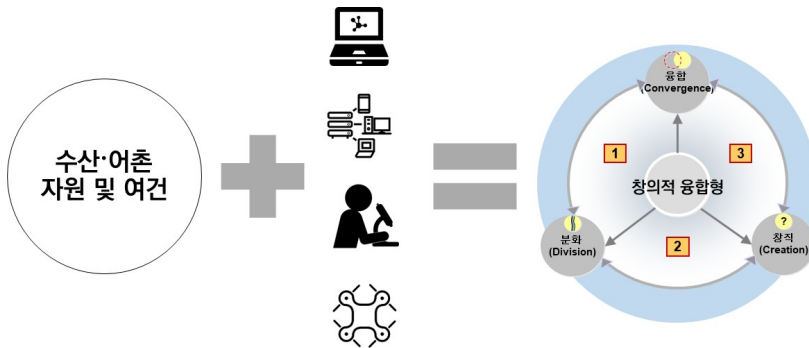
구분	창의적 융합형	수산창업형	어촌 사회혁신형
정책대상	청년 창업희망자	청년 수산창업가	어촌주민 + 청년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 창출	창직 + 융합 + 분화	창업 + 기존 일자리 매칭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
청년 니즈	도전(벤처) 정신	고소득 기대, 안정적인 일자리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공헌)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ICTs, 바이오, 빅데이터, A·I 등)	생산 + 유통 · 가공 + 판매관광 · 서비스	교통, 돌봄, 문화여가, 교육 등 취약한 어촌 생활서비스
실행방안 (해수부)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청년 창업 · 창직활동 지원 강화* -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구성 및 외부 협력기반 강화*	-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영어자금, 컨설팅 등) - 수산인재양성 - 일자리 매칭 - 고령어업인 청년 계승 지원* -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 지원*	- 지역 역량강화 - 어촌 현안문제 해결
마중물 사업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 특화어항개발사업		
기반구축 (해수부)	-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어촌 지역재생 거버넌스 구축 - 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 수립(2019~2023년) - 어촌 지역재생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발간		

주: * 2019년부터 시행예정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다른 마중물사업으로 확대 추진
자료: 저자 작성

(1) 창의적 융합형

창의적 융합형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CTs, 바이오,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창직(Creation), 융합(Convergence), 분화(Division)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형으로 <그림 4-11>과 같다. 창의적 융합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가 만나는 접점이며, 동시에 R&D의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일자리란 수산산업의 영역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림 4-11> 창의적 융합형 개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2> ㈜밸리스 사례는 창의적 융합형과 수산창업의 중간지점에 있는 사례이다. ㈜밸리스 사례는 버려지는 수산자원이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수산이나 식품전공이 아닌 전자공학도 청년들이 수산·어촌사회의 문제의식을 갖고 도전정신으로 3.5억 매출과 11명(정규직 8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끌어냈다. 배스는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어종으로 지자체 단위로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재정투입과 이후 버려지는 자원을 폐기하는 환경처리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밸리스의 청년들은 배스가 반려동물산업과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반려동물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밸리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융합의 영역이며, 동시에 반려동물 사료시장에 분화를 통해 영양제, 간식, 치료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파생시킬 수 있는 지역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4-12〉 수산분야 창의적 융합형 사례(주) 밸리스



01 배스를 활용한 반려동물 영양제

국민 식용 자원 확보를 위해 들어온 배스가 토종 어류의 개체 수를 감소시켰고,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통해 배스를 수매하지만, 폐기 처리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밸리스는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배스를 통해 내수면 어업계의 소득증대, 수매사업비와 폐기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밸리스의 특별한 배스 파우더 제조기술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향으로 만드는 기술과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배양의 보온



1. 원료선정
순수 배스를 선별하여
약 12시간 분말 건조



2. 배합제거
제과기 장치, 열처리
공정하여
약 12시간 분말



3. 혼합제거
혼합 제과기 장치
약 12시간 분말 건조



4. 배합제거
제과기 장치, 열처리
공정하여
약 12시간 분말

배스 파우더 응용제품

(주)밸리스가 개발한 배스 파우더를 응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반려동물용 영양제)



(농업용 사료)



(기능성 영양간식)





자료: ㈜밸리스 공식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2), 사업담당자 세미나자료(세미나일자 2018. 8. 28)

(2) 수산창업형

수산창업형은 청년들이 수산업과 관련된 창업과 기존 일자리를 통해 유입되는 유형이다. 수산창업형은 어업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판매, 관광·서비스 등 어촌사회에서 부족한 수산산업 인력부족과 높은 기대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니즈와 부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수산창업형은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청년유입을 통한 어촌사회의 인력부분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와 사업방식 등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단계별로 지속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어촌 사회혁신형

어촌사회는 교통, 정주환경(소매점, 빈집, 생활안전 등), 복지(노인 및 유아 돌봄,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 문화·여가, 교육 등 생활여건이 취약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신규인력 유입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사회서비스⁶²⁾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규모의 경제, 수익성 등의 관점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촌 사회혁신형은 어촌사회에 공급되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러한 생활서비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결국 어촌사회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창의적 융합형과 수산창업형과는 다르게

6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회서비스(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전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

어촌 지역사회와 청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지역여건과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⁶³⁾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일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어촌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문화·여가, 복지(노인, 유아 돌봄), 교통 불리성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사회혁신 사업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주요 추진과제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전략은 크게 4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표 4-10>과 같이 정리하였다. 다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마련해야 할 신규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제5장의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 다루었다.

<표 4-10>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 및 추진과제

구분	추진과제	비고
창의적 혁신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창직활동 지원 강화	·
	청년일자리 지원 전문기관 운영	·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구성 및 외부 협력기반 강화	·
수산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고령어업인 청년 계승 지원	·
	청년 수산창업 펀드 지원	·
	청년 수산어촌 일자리정보 전달체계 개선	일자리 매칭사업 개편·확대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	·
어촌의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혁신 추진	어촌뉴딜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타 부처 예비 사업적기업 유치 (마중물 사업 연계 추진)
	규제·제도 혁신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제약요인

63)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남.

구분	추진과제	비고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어촌어항재생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	.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 수립	.
	어촌 지역재생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어촌 지역재생 사업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통한 홍보·확산 (일자리 박람회 홍보전략 활용)

주: *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구축과 관련한 4개의 추진과제는 정부 정책건의에서 제시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1) 창의적 혁신의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

(1) 청년 창업·창직활동 지원 강화

가. 청년 어촌산업 창업 원스톱 지원사업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은 일반 서비스업 창업과 비교하여 사업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 없이 창업이후의 안정화 단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양수산 분야 창업지원은 창업이전 단계까지의 창업활동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형태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화 이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해양수산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범위로는 청년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정착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모방식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구현이나 창업기업의 시장진입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선진입하는 해양수산분야 청년창업기업이 적을수록 후발주자들의 진입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4-11〉 수산분야 주요 창업지원

구분	해양산업 오션 비즈니스 창업 경진대회 (舊 연어프로젝트)	대한민국 해양 스타트업 대회	수산창업 콘테스트	수산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분야	해양 · 수산	해양관련 전 분야	수산분야	수산분야
지원자격	제한 없음	예비창업자 (5년 이내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 누구나	제한 없음
지원규모	5개팀 (팀당 5백만 원)	3개팀 (총 1천만 원 내)	10개팀 (총 31백만 원 이내)	12개팀 (총 15백만 원 이내)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교육지원비 컨설팅	상금 인큐베이팅 입주지원 (센텀기술창업타운)	상금	상금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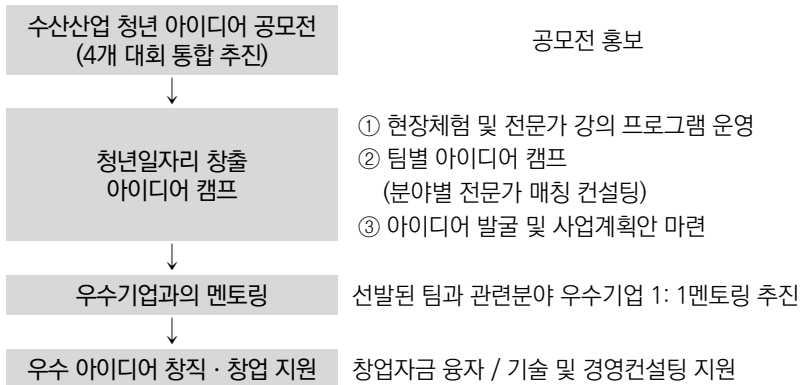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청년층 대상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단계 및 창업이후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형태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창업지원 사업이 스타트업 컨설팅에서 시작하여 창업·사업운영 자금확보 방안 제안, 시장진입 후 경영·마케팅 분야 컨설팅까지를 포괄한다면 해양수산 분야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창업부터 사업관리까지 전 분야를 포괄하는 원스톱 형태의 창업지원사업 제공은 수산·어촌분야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창직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국내의 해양수산 분야는 여타 창업분야 대비 청년창업가의 관심 및 이해가 부족한 분야이다. 이에 창업지원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과 지역별 특화아이템, 시장진입에 성공한 사례, 전문컨설팅 가능기관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지원사업은 일반 벤처창업 또는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홍보활동이 매우 부족하다. 청년대상 해양수산분야 창업공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2~3회차를 맞는 등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사업내용 및 지원성가에 대한 청년 창업 지원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사업 정비와 더불어 유관 경진대회 등을 홍보하여 청년창업가 및 지역활동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4-13〉 수산산업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창직 지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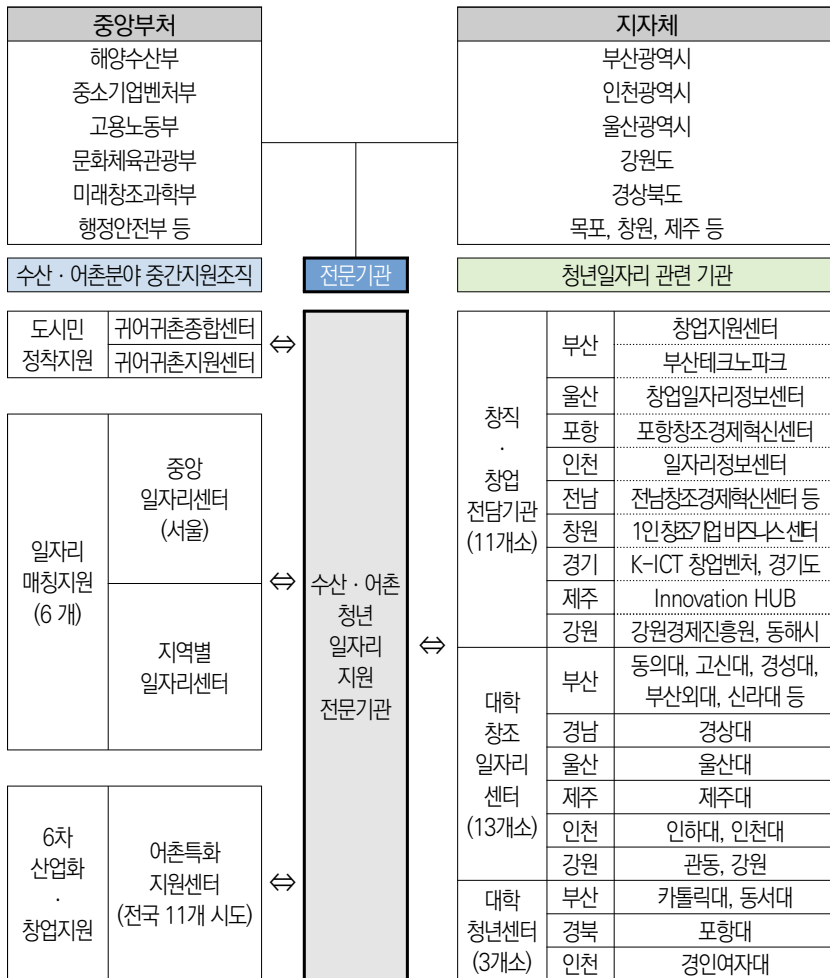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청년일자리 지원 전문기관 운영

청년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은 정부, 지자체, 청년일자리 중간지원조직(창업·창직 전담기관), 수산어촌분야 중간지원조직 사이에서 청년

일자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각지대와 어촌현장과 청년 니즈를 조화시켜 창직·창업과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마련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림 4-14〉 수산·어촌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전문기관 체계(안)



자료: 박상우·이호림·이상규(2017), p. 145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3)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구성 및 외부 협력기반 강화

창의적 혁신을 통한 창업지원을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인력을 둘러싼 해양수산 분야 협력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해당 조직적·인적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창업가 집단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 어촌사회 내 경제조직과의 협력, 타 분야 및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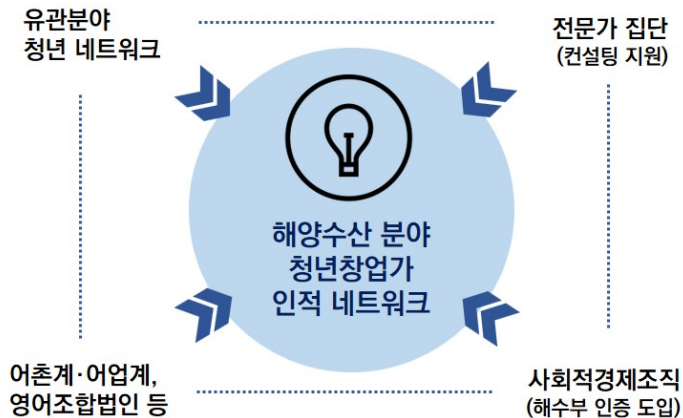
먼저, 창업을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들에게 해양수산 분야의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청년창업가는 물적·인적 자본이 풍부한 어촌사회의 주류 경제조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사업조직을 체계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어촌계 및 영어조합·회사법인 등 기존의 조직에 청년창업가들이 진입하고 해당 인력과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청년창업가 간 새로운 협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해양수산 분야 진출을 지원하거나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인증·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사회적 혁신 강화의 인적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층 중심의 젊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어촌의 생활서비스 강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소요되는 직접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증가에 따른 청년층의 귀어·귀촌 촉진이 가능하다. 어촌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참여자를 다양화하여 어촌지역의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기여한다.

또한 유관분야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분야는 학내 또는 학외 조직 등에서 창업관련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경우가 적으며, 사업화를 위해서는 경영·해양학·환경공학·자연과학·수산학·공학 등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 초기 자본력과 사전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1인 기업보다는 소규모 조직화를 통해 사업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창업성공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서 협력기반 강화 사업에 유관분야 청년 네트워크 지원 내용을 결합하여 해양수산 분야 청년창업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림 4-15〉 청년 어촌산업 창업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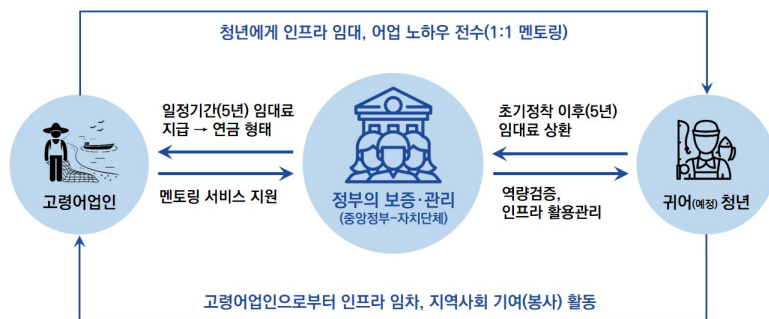
2) 수산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

(1) 고령어업인 청년 계승 지원

고령어업인 청년 계승 지원은 기존의 어업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지원 전략으로 고령층의 어업인프라를 신규유입 청년에게 전수하는 방안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어촌지역의 고령층이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어업 인프라의 보유가치를 현금화하고, 어업인프라가 없는 청년층에게는 초기인프라 확보 및 노하우 습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책적으로는 해당 방안을 고령층의 연금제도와 청년일자리 지원제도로 재구성하고, 어업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사업은 고령층의 어업 인프라를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나잠어업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역량검증을 통과한 귀어(예정) 청년에게 대여하고, 청년층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가 5년간 임대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임대인에게는 임대료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바,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연금관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정·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6〉 고령어업인 어업인프라 임대사업 운영방식



자료: 저자 작성

(2) 청년 수산창업 펀드지원

어촌 지역재생을 통해 청년 창직·창업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목표와 대상으로 펀드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신규로 추진예정인 농식품 벤처펀드와 마이크로 VC 펀드를 검토하고, 이를 수산창업에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창의적 융합형과 수산창업형 청년들을 대상으로 벤처펀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대상은 수산계고교 졸업자, 39세 이하 연령, 창직·창업 아이디어 발굴 대상자로 하며, 투자손실에 대한 부분을 10% 범위에서 감당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투자운용사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청년창업 소액투자 펀드는 창업 초기에 소액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청년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조건 등은 동일하다.

〈표 4-12〉 청년 수산창업 펀드지원(안)

구분	창의적 융합형 및 수산창업형 벤처펀드	청년창업 소액투자 펀드
목적	수산분야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스마트양식 등 창업초기청년기업가 투자 지원	창업 초기 수산창업에 대한 소액투자를 활성화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펀드규모	500억 원 규모	250억 원 규모
지원 대상	• 수산계고교 졸업자가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 (등기임원 중 2인 이상의 경영체) •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 사업준비단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체 • 컨설팅과정 수료자가 창업·창직한 경우	• 사업준비 단계 또는 사업개시 후 5년 미만의 청년에 대해 건당 5억 원 이내 투자
출자 조건	• 모태펀드의 출자 비율 80% • 투자손실 시 모태펀드 출자액에서 10% 이내 충당	
투자 활성화	• 인센티브 제도 확대 추진 * 창의적 융합형 투자(투자금의 5%) * 기준수익률 5% 이상(최대 20%) • 기준수익률 하향과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 도입으로 운용사 투자 유도 * 기준수익률(특수펀드 2% → 수산창업 0%)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0% → 10% 이내)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농식품벤처펀드 및 마이크로 VC 펀드 설명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청년 수산·어촌 일자리정보 전달체계 개선

청년 수산·어촌 일자리정보 전달체계 개선방안은 <표 4-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한 일자리 매칭에서 벗어나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유와 토론의 공간 조성, 콘텐츠 영역의 확대, 지역정보의 세분화, 정보전달 체계에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어촌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섬)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이를 단계별(서류단계 → 면접단계 → 임용계약 준비단계 → 채용완료 등)로 제시함으로써 일자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실시간(Real-time), 스마트폰 앱기반, 쌍방통행 등 청년의 소통문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이들의 접근성 향상과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표 4-13> 청년 수산어촌 일자리정보 전달체계 개선방안(안)

구분	현행(AS IS)	개선방안(TO BE)
지원사업	• 해양수산부 일자리 정보 • 수협중앙회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행복해)	• 수산창업 일자리 포털 • 어촌·농촌·산촌 일자리 포털 연계 (청년일자리 포털 → (가칭) '강들섬들')
콘텐츠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가공·유통업 등)	• 수산분야 융합형 • 수산업 • 어촌 비즈니스
지역정보	• 지역구분 없음	• 11개 연안 시·도별 일자리 정보 • 조건불리지역(섬 지역) 일자리 정보* • 어촌어항재생 사업구역 일자리 정보
일자리정보	• 구인 + 구직 • 유관기관 일자리 정보	• 창직·창업 아이디어 제안 • 수산업(구인, 구직) • 어촌 비즈니스(구인, 구직) • 유관기관 일자리 정보
정보전달	• 일방통행 • 인터넷	• 쌍방통행(구인자, 구직자) • 인터넷, 스마트폰 웹 방식(청년 소통방식 채택) • 단계별 실시간(Real-time)* * 서류제출 - 면접 중 - 채용완료 등

주: * 일본 이도진흥센터에서 섬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단계별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자료: 저자 작성

(4)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은 청년유입에 제약이 많은 섬 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우대지원 방안으로써 관련 지원대상과 가능한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

첫째, 대상지역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모든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이격거리, 어업의 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규정하며, 최근에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모든 섬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창업, 취업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창업·취업 후 5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지원내용은 청년이 조건불리지역에서 초기 창업 시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선지원과 차등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조건과 범위는 향후 정책도입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사업들만 제시하였다.

<표 4-14>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안)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상지역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모든 섬 지역)	-
지원대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조건불리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조건불리지역에서 창업 후 5년 미만인 청년	만 나이 적용시점 (지원요청 기준)
지원내용	• 청년 창업·창직활동 지원 강화(우선지원 / 차등지원) • 청년 수산창업 펀드 지원(우선지원) •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우선지원 / 차등지원) •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우선지원 / 차등지원) • 청년어업인 영여정착자금지원(우선지원)	-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의 사회혁신 전략

(1)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혁신 추진

가. 어촌뉴딜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유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정주환경,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공급구조를 혁신하는 것은 지역재생 사업의 성과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먼저, 생활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연안·도서지역에 분포하는 어촌은 도시와의 이격성으로 인해 복지·교육·문화 등의 사회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제한된 공공서비스 인력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낮은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게 된다. 어촌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문제는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촌의 지역재생 과정을 통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7〉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어촌 지역재생 지원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어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개선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능력은 재정 및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복지·교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어촌지역의 제한된 노동시장 및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업종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어촌 지역재생 활성화와 삶의 질 측면의 성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생활서비스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이 공공성을 지닌 민간조직으로 다양화할 경우 어촌지역 생활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지역수요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 집중 지원

문화예술,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이 어촌 지역재생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는 도시재생의 주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 청년층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앞서 청년 창업·창직 지원 강화 파트에서 확인한 부산의 갯강이 예술마을과 감천문화마을 등이 관련 사례이다. 청년주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촌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림 4-18>과 같이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움직이는 영화관(이동영화관)’ 또는 어항 인근에 ‘작은 영화관(소형영화관)’을 운영하는 민간조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⁶⁴⁾ 더불어 자치단체의 협조·지원을 받아 소규모 콘서트 및 전시

64) 스코틀랜드 북서부의 지방정부(Scotland Highland Council)에서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과 함께 인근 섬 지역을 순회하는 영화트럭을 후원하고 있음.

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공익사업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4-18〉 농어촌지역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 사례



자료: (좌)저자 촬영, (우)연합뉴스(검색일: 2018. 10. 5)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농어촌 봉사활동 일회성·단발성 형태로 제공하던 교육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하여 청년주도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공공의 교육서비스 공급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도서지역 순회형 교육프로그램 원격 ICTs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특화된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운영은 향후 교육부·행정안전부의 사업과 연계하여 어촌지역의 교육서비스 품질제고 및 가족단위 귀어귀촌인 유인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19〉에 제시된 ‘꿈사다리 학교’는 대학(원)생들이 방학기간 중 학생수 60명 이하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생활하며 지역 청소년들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봉사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청년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정례화·체계화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적인 교육시장 진입과 어촌지역 교육품질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19〉 농어촌지역 교육 서비스 공급 사례



자료: (좌) 아름다운 배움 꿈사다리학교 홍보포스터(검색일: 2018. 10. 5), (우)연세대학교 공식블로그
(검색일: 2018. 10. 5)

셋째, 사회복지 및 돌봄 분야는 유아·노인 돌봄, 일상형·위급형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청년주도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에 제시된 제주 비양도 이동복지관 사례와 같이 인근 섬 지역을 순회하는 형태의 사업운영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연안·도서지역에서 제기되는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낙도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지원 측면에서 어업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대상의 단기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육아지원 측면의 돌봄 또는 어촌지역 노인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형성은 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어촌지역의 복지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20〉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돌봄 서비스 공급 사례



자료: (좌)시사제주 (검색일: 2018. 10. 5), (우)저자 촬영

(2) 규제·제도 혁신 지원

어촌 지역재생의 추진과정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규제나 제도적으로 제약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방안이며, 이는 각 개별정책 및 사업과 법·제도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수산창업을 어촌 지역재생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에 따른 세제 감면(안)을 제시해 보았다. 다만, 규제·제도 혁신은 추후 별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15〉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 혁신 사례(안)

근거법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 3	①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0분의 20에 _____ _____

근거법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_____,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등을 _____. _____.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이 연구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역밀착형 생활 SOC로 해양수산부의 핵심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연구로 수행되었다.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어촌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유입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부활시키는 '재생(再生)'의 방안으로 지역재생의 마중물과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이 연계되고, 더 나아가 부처 간 지역재생 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 지역재생의 차원에서 어촌뉴딜 300사업과 일반농어촌개발사업 등 마중물 지원사업과 수산창업 및 일자리 매칭, 청년귀어인 정착, 지역 역량강화, 어촌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정책 간 연계와 사업시행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와 전략

맞춤형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어촌사회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소와 청년 니즈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요소를 어촌 지역재생의 기제를 통해 접근하였다.

어촌 지역재생의 시각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는 이번 현안연구가 최초의 연구이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는 관련 법제개정 연구, 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어촌뉴딜 모델개발), 어촌분야의 지역재생 성과평가와 성공모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어촌분야에 국한된 청년일자리 창출보다는 연안·항만, 해양레저관광, 일자리와 규제혁신을 아우르는 (가칭) 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을 마련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조직과 사업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람들이 돌아오는 어촌으로 조성하여 제2의 어촌 전성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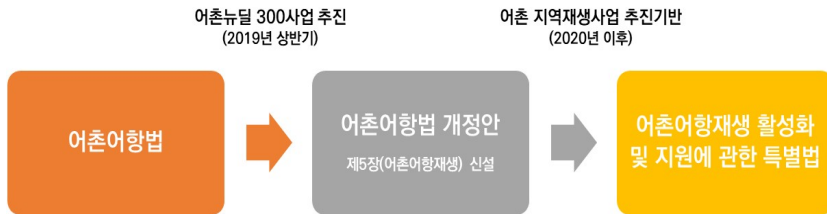
제2절 정책제언

1.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였다. 「어촌어항법」은 법제정 이전의 어항법과 그 배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4장 어항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촌과 어항개발로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어촌과 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추구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제5장을

어촌·어항재생으로 신설하고, 이를 어촌 지역재생의 근거규정으로 마련토록 한다.

〈그림 5-26〉 어촌어항재생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자료: 저자 작성

1) 어촌어항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촌뉴딜 300사업에 국한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제3절~제4절의 어촌·어항 개발과 제5절의 어촌어항 재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큰 틀에서 어촌어항법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1장과 제2장은 정의와 발전기본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제5장의 어촌어항재생은 계획수립(제48조, 제49조), 거버넌스 추진체계(제50조~제52조), 사업시행 및 지원(제53조) 등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개정과 어촌어항법과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1〉 어촌어항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어촌어항재생 관련 용어의 정의 - “어촌·어항재생” / “어촌·어항재생사업” - “어촌어항재생사업구역”	
제2장	발전기본 계획	(제4조): 기본계획 사항 중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항 추가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중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항 추가	
제5장	어촌· 어항재생	(제48조): “어촌·어항재생전략계획 수립(해수부)” 사항 신설	계획수립
		(제49조):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지자체)” 사항 신설	
		(제50조): “어촌·어항재생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설치” 사항 신설	거버넌스 추진체계
		(제51조): “어촌·어항재생사업지원단 설치 및 지원 근거” 사항 신설	
		(제52조):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 설치” 사항 신설	
		(제53조):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 및 사업비 지원” 사항 신설	사업시행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안), TF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2)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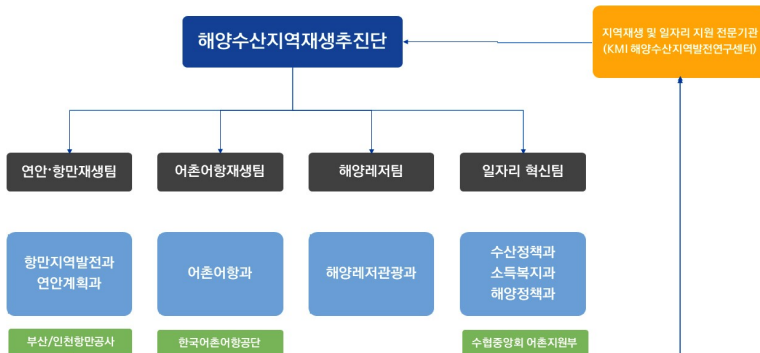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어촌어항법 제5장의 내용을 토대로 어촌 지역재생의 체계적인 지원체제와 해양수산부, 다른 부처의 지역재생과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제정은 유사입법 사례로 도시재생법을 검토하되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어촌의 특성과 관련 지역재생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어촌 지역재생과 청년일자리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어촌의 지역재생은 생활 SOC로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비중이 크고, 이러한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어촌어항과, 해양레저관광과 등이 있으며, 반면에 청년일자리는 여러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어촌어항재생과 청년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와 해양수산부 내에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전문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일자리 업무를 위해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생 업무와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있으며, 두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과 연안·어촌지역재생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고, (가칭) 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단을 민간영역에서 어촌어항, 연안·항만, 해양레저, 일자리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총괄하고, 정책방향, 사업평가 등 전방위적인 지원업무에 필요한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이는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근거규정과 세부 역할 등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림 5-2〉 (가칭) 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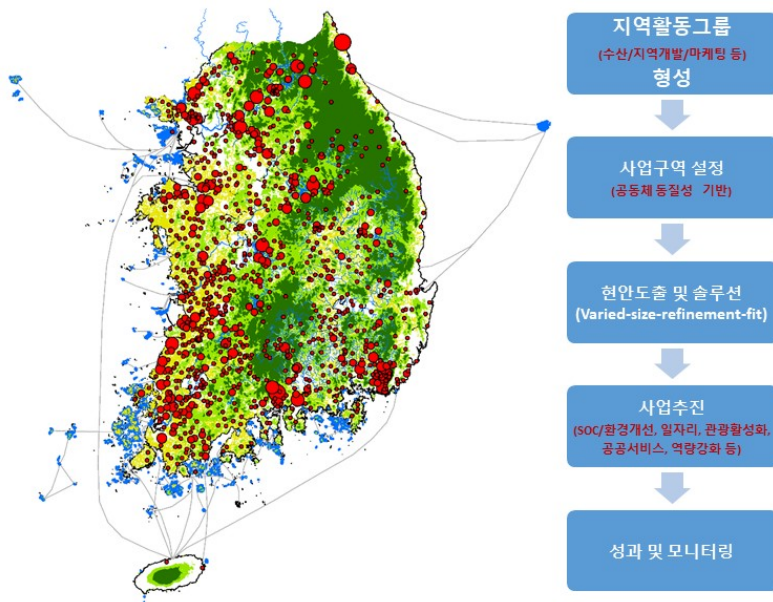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가칭) 강들섬들(어촌 · 어항재생 종합계획) 추진

어촌 지역재생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뿐만 아니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거점권역 100억 원)도 2018년부터 지정 · 추진되고 있다. 1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면과 내수면의 권역설정과 사업모델 도출을 통해 연차별로 시행되는 어촌 지역재생의 큰 밑그림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을 (가칭) 강들섬들 프로젝트로 강(내수면), 들(농어촌), 섬(어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어촌 지역 재생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구상(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3〉 어촌어항재생 종합계획 수립(안)



자료: 박상우, 2018 국가균형박람회 발표자료(어촌어항재생을 통한 어촌발전 정책방향)의 내용을 일부 발췌함

4. 어촌 지역재생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어촌 지역재생은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마중물 지원사업에서부터 수산창업, 청년어업인 정착 등 다양한 수산·어촌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중물 사업지원은 수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생활 SOC사업으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과감하게 축소·폐지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사업별로 ‘청년일자리 수’로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수산창업,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일자리 매칭, 수산인재 육성 등의 사업은 지원실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5-2〉 어촌 지역재생 성과평가 추진방안

구분		사업명	추진방안
마중물 사업지원	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연구용역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14~'18년)
	어항	특화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 통합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산업 창업지원	중간지원 조직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실적 모니터링 (수산정책과 / 어촌어항과 / 해양레저관광과)
	수산관련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귀어인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	
	해양관광 벤처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정보전달 및 컨설팅	귀어귀촌 창업박람회	지원실적 모니터링 (어촌어항과)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구분		사업명	추진방안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정착지원	귀어학교 개설	지원실적 모니터링 (어촌어항과)
		귀어귀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생활안정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	
일자리 매칭		어업인 일자리 지원 / 알자리 정보	지원실적 모니터링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수산인재 육성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지원실적 모니터링 (소득복지과)
		수산계 대학과정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동진,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1(1), 2010.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권규상 외,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8.

김륜희 윤정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7.

김정호 외,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5.

김진수 외, 「미래가치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201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부자료(농식품벤처펀드 및 마이크포 VC 펀드 설명자료), 2018.

박상우, 이호림, 이상규,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박인권,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2012.

박인권,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2. 11.

변해선 외, 「도시재생 뉴딜 실천과제 발굴 연구」, 충청북도, 2017.

수협중앙회, 2017년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17.

신순호·박성현, 「예술의 섬, 나오시마(直島) 지역의 인구·사회구조에 관한 연구」, 도서문화(제42집), 2013.

이광남 외, 「해양수산 주요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연구」, 해양수산부, 2018.

이민수 외, 「농촌진흥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진흥청, 2017.

- 이소영 외,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 이왕건 외,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17.
- 이토 미노루, 「일본의 지역별 고용창출 유형과 성공사례」, 국제노동브리프 13(1),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이홍배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제도 도입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1.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8.
- 정윤희 외,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10.
- 추미경 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관광체육부, 2012. 12.
- 하혜영 · 김유정, 「일본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
- 한국농어촌공사, 2013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계획서, 201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스마트팜 확산 방안」, 주간 농업농촌동향 17권. 2018.
- 한승욱, 오재환, 이동현,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재생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1. 11.
- 해양수산부, 「2017년도 삶의 질 연차보고서」, 2018a.
- 해양수산부, 「2018년 해양수산업시행지침서(세부사업계획): II(수산분야)」, 2018b.

〈국외 문헌〉

- Pijanowski JM. 「Village Renewal as an Important Element of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Barometr Regionalny, 2016:14(3).
- 내각관방, 「지방창생과 작은거점 · 지역거점조직의 형성에 관한 대응」 설명자료 (2018. 3. 6 발표).

노무라종합연구소(2016년 6월 기준 예측치)

아마정 내부 자료, 일본 지방창생전략 분석 보고서.

일본 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2013년)

〈인터넷 자료〉

구글검색, <http://reforms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2> (검색일 : 2018.10.18.)

구글검색,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41003_Factory_Berlin.jpg (검색일 : 2018.10.05.)

깡깡이 예술마을 홈페이지, <http://kangkangee.com/index.php/kangkangeeinvestigate/kangkangeelooksvillage/> (검색일 : 2018. 10.03)

세토우치예술제 홈페이지, <https://setouchi-artfest.jp/ko/about> (검색일 : 2018.10.05)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4725&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 2018 (검색일 : 2018.10.0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 방안」, <file:///C:/Users/PSW/Downloads/%EC%B2%A8%EB%B6%801+%EC%8A%A4%EB%A7%88%ED%8A%B8%ED%8C%9C+%ED%99%95%EC%82%B0+%EB%B0%A9%EC%95%88.pdf> (검색일 : 2018.09.30.)

문래예술공장 공식카페, <https://cafe.naver.com/mullaartspace/> (검색일 2018.10.05)

구글검색, <http://www.busan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 (검색일 : 2018.10.05.)

- 빌트폴드스리드 지역소개자료, https://www.ieee.hr/_download/repository/Dalibor_Markovic_-_Wildpolsried.pdf(검색일 : 2018. 10.2)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중 우리동네정보, http://sygc.kr/area_08/16870; http://sygc.kr/index.php?_filter=search&mid=area_08&search_keyword=%EB%AC%B8%EB%9E%9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0280 (검색일 : 2018.10.05.)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발표자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jM6J7Sn4_eAhVEA4gKHQIwCl0Qjhx6BAgBEAI&url=http%3A%2F%2Fice.uos.ac.kr%2Fcmnm%2Fdownload.do%3Fidx%3D461&psig=AOvVaw19PVc3ZS04PBzyQjyU9cVZ&ust=1539926492864491
- 수협중앙회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https://www.happybada.co.kr/front/>
- 스카이데일리, “착박한 철제공장 땅에 핀 예술혼들의 움막”,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9113 (검색일 : 2018, 10. 05)
- 시사제주,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96>, (검색일 : 2018.10.05.)
- 아름다운 배움 꿈사다리학교 홍보포스터, <https://cafe.naver.com/specup/4222107> (검색일 : 2018.10.05.)
- 아트인사이드 [Opinion] 첫소리 울리는 예술촌, 문래동을 거닐다' (<http://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29970>, 검색일: 2018.10.05)
- 연세대학교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seiblog/221340285447>, (검색일 : 2018.10.05.)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5664531>, (검색일 : 2018.10.05.)
- 영국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Tate St Ives) 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tate.org.uk/about-us/projects/new-tate-st-ives>, 검색일 : 2018.10.05)
- 일본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공식홈페이지, <http://translate-ko.city.yokohama.lg.jp/kenko/hokenjo/genre/seikatsu/20180222105955.html>

조선일보, “베를린,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6/2015040600060.html(검색일 : 2018.09.27)

(주)밸리스 공식홈페이지 (<https://www.밸리스.com>)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프레스맨 홈페이지(<http://www.pressm.kr>)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공식 홈페이지 중 ‘강강이 예술마을’ 사례, https://korean.visitkorea.or.kr/kor/bz15/industour/indus_main.jsp?cid=2554070&img=&areaCode=6&gotoPage=&overview=강강이 예술마을&kwld
(검색일 : 2018.10.03.)

한국일보, “브렉시트로 주춤한 런던제치고.. 베를린, 블록체인 스타트업 열기 거세져”,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91701387101>
(검색일 : 2018.09.27)

해양수산부 일자리정보 (<http://www.mof.go.kr/job/index.do?menuKey=785>)

KET 웹보고서 「2017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 리뷰」, <https://ket-nyet.org/2017/04/13/2017-%EA%B8%80%EB%A1%9C%EB%B2%8C-%EC%8A%A4%ED%83%80%ED%8A%B8%EC%97%85-%EC%83%9D%ED%83%9C%EA%B3%84-%EB%9E%AD%ED%82%B9-%EB%A6%AC%EB%B7%B0/> (검색일 : 2018.10.05)

Renewable Energy World, “A Small Town in Germany Becomes a Testing Ground for a Smart Grid”, <https://www.renewableenergyworld.com/articles/2014/11/a-small-town-in-germany-becomes-a-testing-ground-for-a-smart-grid.html> (검색일 : 2018, 09. 28)

Startup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https://startupgenome.com/thank-you-enjoy-reading>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행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 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드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언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어촌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인 쇄 | 2019년 4월 28일 인쇄

발 행 | 2019년 4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 판 · 인쇄 | 공감 Tel : 070-4407-6252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